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에 관한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다 운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다 운

인 준 서

이다운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 안에서 만 1세의 영아들의 블록 놀이 특성이 어떠한지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영아에게 블록 놀이가 갖는 의미를 기술하여 영아의 블록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영아교육 관련기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1-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1-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K어린이집의 만 1세 영아 16명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주3~4회의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고, 교사와의 면담, 비디오 및 사진촬영, 각종 문서 등의 자료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참여관찰 일지, 면담내용, 비디오 자료, 어린이집의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 조직,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1-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관찰결과 영아의 블록놀이의 특성을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과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블록놀

이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은 영아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사용하는 블록의 종류와 블록 놀이감 사용개수 및 블록놀이 지속시간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월령별 발달수준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영아들은 블록놀이에서 주로 종이벽돌 블록과 스폰지 블록 등 크기가 크고 몇 번의 움직임으로 쉽게 구성이 완성되는 블록을 사용하였으며, 월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린 월령의 영아는 끼우기 블록 중 큰 코코블록을 사용하였고, 월령이 높은 영아는 비교적 작은 레고블록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블록 놀이감 사용 개수의 경우에는 19~24개월의 영아가 12~18개월의 영아보다 더 많은 수의 블록 놀이감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 되었다.

영아의 블록놀이 지속시간의 경우에는 19~24개월의 월령에 있는 영아가 12~18개월 월령의 영아보다 좀 더 오랜 시간동안 블록놀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한가?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자유롭게 탐색하기,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 같은 활동 반복하기, 상징적으로 표상하기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영아 블록놀이 행동의 하위범주 중 자유롭게 탐색하기를 살펴보면, 자유롭게 탐색하기는 영아의 비의도적인 탐색으로서 신체를 이용하여 탐색하기, 블록의 물리적인 변화 탐색하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영아들은 블록 놀이감을 신체를 이용해 빨고, 비비고, 누르고, 쥐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또한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물리적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블록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면적인 상황은 영아에게 각 사물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었다.

영아들의 블록놀이 특성 중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를 살펴보면,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 하였는데, 대 근육을 사용하여 블록을 밀고, 당기고, 교실 전체를 사용하여 블록을 끌고 다니면서 신

체의 힘을 조절하며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였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블록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다.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였다. 블록을 던지고, 쌓기 구조물을 부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통해 정서 이완을 경험하였다.

관찰에서 나타난 영아들의 블록놀이 특성 중 또 하나는 같은 활동 반복하기이다. 영아들은 블록을 쌓고 부수고, 다시 쌓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블록을 수평으로 나열하고, 끼우기 블록을 계속해서 끼워나가는 반복적인 활동을 즐겼다. 영아는 블록놀이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블록과 친숙해지고 블록 구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물을 조작하는 단계로부터 사물을 구성하는 단계로의 발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영아는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놀이 기술(skill)이 발달하여 상징놀이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영아들의 블록놀이 특성 중 상징적으로 표상하기는 만 1세 영아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발전적인 형태의 블록놀이였다. 영아들은 쌓기 활동을 통해 블록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비록 상징적이고 비구조적인 형태이지만 구성물을 명명하며, 블록놀이를 통한 상상놀이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영아는 이러한 상징적 표상하기 단계에서 블록놀이를 또래와의 만남의 매개로 활용하였다. 블록 놀이의 시작단계에서 영아는 별다른 개입 없이 또래의 놀이를 지켜보는 방관자적 놀이 형태를 보였으나 점차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래와 놀이감을 교환하거나,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등의 단독놀이에서 병행놀이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물리적인 환경제공 등의 적절한 개입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합놀이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교사의 도움으로 비의도적인 활동에서 의도성이 있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의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영아의 상징적 표상활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	5
1) 12~18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징	5
2) 19~24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징	8
2. 영아기의 놀이	12
1) 영아의 탐색과 놀이	12
2) 영아기의 놀이 유형	14
3) 영아기의 놀이감	15
3. 블록 놀이	18
1) 블록놀이의 교육적 의의	18
2) 블록놀이 발달단계	21
3) 영아를 위한 블록 놀이감	24
4. 선행연구	26
III. 연구 방법	30
1. 연구 대상	30
1) 연구대상 선정과 교육적 환경	30

2) 맑은 반의 교육적 환경	31
3) 교사와 영아	33
4) 맑은 반의 하루일과	33
2.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34
1) 연구절차	34
2) 자료수집	35
3. 자료의 타당화	38
4. 자료 분석	38
1) 수집된 자료들	38
2) 자료분석 과정	39
IV. 영아의 블록놀이에 대한 이해	41
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	41
1)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블록의 종류	41
2)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블록의 사용개수	42
3) 영아의 블록놀이 지속시간	43
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44
1) 자유롭게 탐색하기(비의도적인 탐색)	44
2)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	54
3) 같은 활동반복하기	59
4) 상징적으로 표상하기	70
V. 논의 및 결론	78
1. 논의 및 결론	78
2. 제언	8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만 1세 영아의 놀이실 구성 및 적합한 놀이감	17
<표 2> 만 1세 영아를 위한 블록놀이감	25
<표 3> 맑은 반 하루일과의 예	34
<표 4> 수집된 자료의 종류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아는 탐색과 놀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나간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영아는 세상을 경험하고, 그들만의 지식을 습득하며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환경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받아들인다. 영아에게 놀이는 삶이자 자발적인 학습의 수단이 되며, 영아는 놀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놀이를 통하여 주변의 인적, 물적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맺게 되어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놀이는 영아의 흥미를 자극하고 지지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

영아기의 놀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숙재(1998)는 영아의 놀이를 사회성 발달에 근거하여 놀이를 분류하는 방법과 인지발달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사회성 발달에 근거하여 놀이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Parten(1932)이다. Parten(1932)은 사회적 참여도에 따라 놀이를 분류하였으며, 여기에는 비 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가 있다. 이 중, 영아기의 놀이는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이 혼자서 놀이하거나 또래와 단순한 상호작용만 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놀이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Piaget(1962)이며, 그는 놀이를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는 연습놀이, 표상을 사용하는 상징놀이, 약속과 규칙을 사용하여 놀이하는 규칙놀이를 나누고 있다. 지성애(2001)는 초기 영아기, 즉 감각운동기에는 영아들이 단순한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시기이며, 점점 표상을 사용하여 사물을 대치할 수 있는 상징놀이가 발달되어 간다고 하였다.

영아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놀이를 하든 거의 사물을 사용한다. 연습놀이를 하는 영아는 차고, 굴리고, 끌고, 던질 수 있는 놀이감을 사용하고, 구성놀이를 하는 영아는 쌓고, 만들고, 구성하는 놀이감을 사용한다(유애열, 1994). 이러한 놀이감은 영아의 놀이 유형을 결정하고, 놀이를 충족시키며, 놀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또래와 연결켜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아의 놀이감 중 블록은 오래전부터 영아를 위한 기본 자료로 중요시 되어왔다. 블록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있으며,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때로는 부숴 버릴 수도 있는 3차원의 견고한 특성을 가졌고(정은희, 2005) 용도가 무제한으로 개방된 놀이감으로 다양한 놀이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숙재, 1993).

Cartwright (1974)는 블록은 견고한 재질과 개방적인 특성으로 자유로운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유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블록을 가지고 놀이해 보는 경험은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반복놀이를 즐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다. 블록놀이를 통해 환경을 탐색하기도 하고, 블록놀이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기를 수도 있다. 이러한 블록놀이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언어 등 전인적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블록을 쥐고 던지고 잡고 굴리고 하는 놀이 속에서 영아들의 대근육과 소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신체발달을 도우며, 블록 구성을 위해 블록을 탐색하고, 조작하며 다양한 구성작업을 주도하고 놀이에 활용함으로써 블록을 가지고 쌓기 놀이를 하는 가운데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고, 영아가 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로이 블록을 활용하고, 구성물을 만드는 기쁨과 파괴의 쾌감을 즐길 수 있으며, 구성물을 통해 쉽게 성취감을 경험하여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블록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비언어적이거나, 단순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술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또한 자신의 구성물을 명명하거나, 완성한 구성물을 활용하여 놀이하면서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블록놀이가 영아의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 가치가 높고, 놀이실에서 영아가 대 근육을 사용하여 쌓고 부수고 단순한 구성을 하는 등의 블록놀이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블록놀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블록놀이에 관한 연구는 블록놀이가 사회적 행동이나 창의성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블록 놀이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도 그 대상이 유아에 한정되어 있다(구현아, 1996; 권미경, 2002; 김광진, 2003; 성은주, 2001; 이재선, 1990; 정은희, 2005).

이러한 영아의 블록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에 영아의 구성놀이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서경혜(2005)는 2세 영아의 구성놀이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면서 블록 활동과 그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만 2세 영아들 중 연령 단위를 나누어 영아의 구성놀이의 형태를 살펴보면, 블록 활동과 그리기 활동이 월령에 따라 어떠한 단계를 거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임혜영(1999)은 1·2세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해 연구하기 위하여 쌓기 놀이와 소꿉놀이를 살펴본다. 영아의 상징놀이 출현시간 및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아 영아의 상징놀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매란(2003)은 나무도막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하여, 영아부터 유아기까지의 블록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만 2세 이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블록놀이를 구성놀이 및 상징놀이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

아들의 블록놀이의 특성과 블록놀이의 놀이 현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만 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 안에서 만 1세의 영아들의 블록놀이 특성이 어떠한지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영아에게 블록 놀이가 갖는 의미를 기술하여 영아의 블록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영아교육 관련기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1-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1-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

영아기는 일생 중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영아는 태어나면서 배우고 발달하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과 세계에 관여한다. 이러한 시기의 영아는 발달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변화의 폭도 커서 이때 이루어진 발달은 일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이은혜, 김온기, 이미화, 1997). 때로 우리는 영아에 대해 말할 때 영아를 마치 작은 부분들의 단순 집합체로 여기지만 영아는 전인이며, 전인으로서의 영아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존재이다(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경서, 1999, 재인용). 이러한 영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영역으로 영아의 특징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12~18개월, 18~24개월 영아의 신체발달, 지적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2~18개월의 영아의 발달적 특징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영아들의 행동은 다양해지며 영아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돌아다닐 수 있다. 또한 생각이나 의견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을 밀고 당기며 가지고 다니고 전에 보았던 행동을 흉내 내기도 하면서 가상놀이를 즐긴다.

(1) 신체발달

12~18개월 영아의 신체발달은 주요 특징이 걷기를 통한 이동능력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근육 운동으로 블록쌓기, 손 선호가 나타나며 대근육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 걷기, 던지기과 차기 등이 나타나며 행동이 점점 더 민첩해짐을 볼 수 있다. 던지기와 차기는 몸의 균형을 잡은 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이므로 팔과 다리를 휘두르는 기술 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시기 영아들은 몸의 균형을 잡는 것에 능숙해지며 자신들이 걷는 표면의 유형에 맞게 행동을 적응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표면보다 불안정한 표면에서 더 주의 깊게 걷는다. 또한 16개월 영아 중 88.0%의 영아는 달릴 수 있으며, 72.4%의 영아는 뛰다가 스스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속도조절이 어렵게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 즉시 멈추지 못하고 부딪치는 일이 잦고 갑작스러운 멈춤이나 회전의 통제는 쉽지 않다(장휘숙, 2001).

(2) 지적발달

영아기 어린이는 자신의 신체나 주변에 있는 물건과 놀이감을 가지고 탐색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적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감각운동기의 5단계인 삼차순환반응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속하는 영아는 적극적인 탐색과 시행착오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단과 결과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 시기에는 대상영속성개념이 어느 수준으로 발달했는지 또한 문제해결력과 모방 정도, 색과 형태개념 이해와 공간개념에 대해 알 수 있다.

대상영속성과 관련하여 13~14개월이 되면 평균 85%정도의 영아들이 완전히 숨겨진 물체를 찾을 수 있으며, 17~18개월이 되면 평균 25% 정도의 영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가 바뀐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대상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이해하는 대상영속성개념을 획득하는 최종단계의

과제로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를 옮겼을 때 물건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대상이 영아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영아의 절반 이상은 문제해결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며 손가락이나 컵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 이밖에 모방 및 공간개념, 개념의 이해가 점차 향상되어 간다.

(3) 언어발달

이 시기 영아들은 3~10개 이상(대부분 명사)의 어휘를 습득할 수 있으며, 빠른 영아들은 두 낱말로 이루어진 어구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말만 이용하여 의사 표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몸짓과 발화를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한다. 그러나 점차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요구하는 등 간단한 의사표현행동도 더 많이 나타나고 발성 역시 성인과 유사한 억양패턴을 사용하게 된다.

영아들이 문맥과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어를 지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3~16개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영아들은 일부 단어의 경우엔 처음부터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은 문맥-의존적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아가 첫 단어를 말한 이후부터 50단어를 획득할 때까지는 어휘의 증가가 완만하며, 처음의 50단어도 전형적으로 엄마, 아빠, 물, 과자,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이름 등 자기 주변의 사건이나 중요한 대상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영아가 어휘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영아가 하나의 단어를 성인들이 통상 적용하는 대상물 이외의 사물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과잉확장 및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한 종류에만 국한시켜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과잉축소가 나타난다. 16~18개월경의 점차적으로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지시를 듣고 이를 수행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영아들은 대부분 자신이 들은 문장을 구문구조보다는 문장에 포함된 일부 단어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해한다.

(4) 사회 · 정서발달

이 시기 영아의 주요 발달 과제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형성된 안정된 애착은 이후 사회정서발달의 기초가 되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영아는 또래나 다른 성인들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로 발달시켜나간다. 영아는 성장함에 따라 점차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의 요구보다 어머니를 안전 기기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려는 호기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유아기 후반까지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거나 놀이나 활동에 몰입 정도도 낮고 호기심도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영아들은 이 시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일에 소리를 내어 웃기도 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아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므로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13개월 이후부터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서에 대해 공감적인 표현을 하는 행동이 점차 두드러지게 발달하며, 행동과 말로 정서를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2) 19~24개월의 영아의 발달적 특징

감각운동기의 마지막단계인 19~24개월은 신체적 · 정서적 · 지적 발달 양상을 신비롭게 체험하게 된다. 발달적으로 볼 때 짧은 기간이지만 발달속도

는 어느 시기보다 빠르고 변화의 폭도 커서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문제 해결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표상능력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Karyn Wellhousen & Judith Kieff, 2004). 따라서 영아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김재은, 이연섭, 1977). 19~24개월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발달

19~24개월 시기는 걸음마가 보다 능숙해지고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신체 균형의 안정성이 커지게 되며 눈-손/눈-발의 협응력이 향상된다. 즉 영아들은 아동능력이 향상되면서 대근육 활동을 보다 즐기게 되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자나 물건 등을 밀고, 당기고,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등 다양한 대근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장영희, 2004). 또한 소근육도 발달하여 손가락과 손목의 조정능력이 향상되며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한다. 즉 5~6개의 블록을 쌓을 수도 있고 큰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등 손과 팔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굵적거리기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아는 탐색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탐색하는 방법도 만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손목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누르고 돌리고, 열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 지적발달

19~24개월 시기의 주요 특징은 영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적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영아들은 정신적 상을 형성하기 위해 감각운동도식을 내면화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상징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상징적으로 사건, 사물, 사람을 표상하는 능력은 새로운 시작으로

인과관계 개념에 영향을 주어 영아는 어떠한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표상을 통해 추론할 수 있게 된다(Rebecca Anne Bailey & Elisie Carter Burton, 1982).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해결과정을 행동하기 전에 미리 예견해볼 수 있다. 이러한 표상능력이 발달하면서 영아들은 경험한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상세히 재생할 수 있는 지연모방을 할 수 있게 된다(장영희, 2004). 이제 영아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18~24개월 시기는 대상영속성 개념이 성숙되고 보다 완전해진다. 숨겨진 물건의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정신적 표상이 형성되므로 눈에 보이는 이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동에 대해서도 추측하여 찾아낼 수 있다. 영아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 숨겨진 장소에서 사물을 찾으려 하며, 숨기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물을 찾으려고 한다(Rebecca Anne Baily & Elisie Carter Burton, 1982).

21~24개월이 되면 자신도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여러 대상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김재은, 이연섭, 1997). 사진이나 거울을 통한 영아의 자기인식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생후 21개월이 되면서 자신을 변별하기 시작했으며 24개월이 되어서야 영아의 자기인식은 확고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4개월이 되면 영아는 다른 사물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과 공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3) 언어발달

17~18개월경이 되면 단어 두 개를 결합시켜 표현하고 20개월 정도가 되면 세 단어를 조합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을 명명하는 단어를 급속히 습득하며 잘못 발성된 소리를 고쳐주면 따

라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음성의 크기 및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한 단어 시기에는 어휘의 획득 속도가 느린 편이나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하는 18개월경부터 영아가 사용하는 어휘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15개월에서 10개의 낱말을 사용했으나 20개월이 되면 50개의 낱말을 표현하고 24개월에는 250~300개의 낱말을 구사한다. 이와 같이 언어획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24개월 전후를 언어발달의 ‘폭발적 팽창시기’ 라고 한다(장영희, 2004).

이 시기 영아의 언어능력은 성인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 모방학습의 기회가 증대되고, 완전하고 적절한 문장이 언어의 본보기로서 제공되며, 풍부한 문화 환경 및 매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발달된다(서울특별시, 1997, 재인용).

(4) 사회 · 정서발달

19~24개월이 되면 영아는 인지적 측면에서 내면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므로 상징적인 심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영아들은 점차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보류하거나 바꾸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또한 영아는 이전보다 사회적 접촉을 훨씬 많이 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시기는 영아가 자기 통제 및 자기 규제 능력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어떤 규칙을 배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이미 조절할 수 있는 익숙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강한 자극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미처 적용하지 못하기도 한다(정미라, 2005).

2. 영아기의 놀이

놀이 활동은 신생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아기의 놀이는 곧 영아의 삶이자 자발적 학습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영아기의 놀이행동은 모든 행동측면을 통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발달의 모든 영역 즉 인지, 정서, 언어, 신체,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킨다(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경서, 1999).

영아들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놀이를 즐긴다. 영아를 이한 보육시설에서도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이 놀이시간으로 할애되고 있다. 이처럼 영아기의 발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놀이에 대해 출생에서 24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영아의 탐색과 놀이

영아기의 놀이와 탐색은 영아의 일련의 행동을 세분화된 단위 행동으로 정확히 나눌 수 없으므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긴 하지만 Wohlwil(1984)는 영아의 놀이와 탐색은 정서 상태, 고정화된 행동유형의 양, 영아의 주의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영아의 놀이와 탐색의 차이를 연구에서 Hughes와 Hutt(1979)는 영아의 놀이와 탐색에 따른 정서 상태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영아가 놀이를 할 때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이는 반면 탐색을 할 때는 중립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놀이를 할 때는 즐겁고 기쁘게 보이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할 때는 주의 깊고 심각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영아의 놀이와 탐색의 차이에서 Hughes와 Hutt(1979)는 영아가 탐색을 할 때는 고정화된 행동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지갑

을 탐색한다면 대부분의 영아가 언제, 어느 때 하건 간에 공통적으로 마치 의식을 치르듯 각각의 내용물들을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자기 뺨에 문질러 볼 것이다. 그러나 지갑에 든 물건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면 다양하고 융통성 있으며 편안하게 활동하므로 행동의 고정성이나 엄격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주의집중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탐색을 할 때는 탐색대상(사물)에 영아는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때 영아는 진지하고 심장박동은 규칙적이며 방해 받기 싫어한다. 그러나 놀이를 할 때는 심장박동수가 불규칙적이고 주의집중도는 덜하다고 하였다. (Hughes, 1978; Hughes & Hutt, 1979; Hutt, 1979). 영아가 언제 탐색을 하고 언제 놀이를 하는지는 상황이나 사물이 얼마나 친숙하냐에 달려있다(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경서, 1999, 재인용). 탐색은 놀이 전에 일어난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일 때 영아는 먼저 그것을 탐색하여 점차 익숙해지고 그 환경이 편안해 짐에 따라 놀이를 하게 된다. 또 외부의 자극이 낮설고 복잡할 때 영아의 관심과 주의집중은 그 자극에 지배당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영아가 그 대상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의 주변 환경을 놀이를 통해서 숙달된다(Rubin, Fein & Vandenberg, 1983).

최근까지 이루어져 연구들에 의하면 영아의 물체를 탐색하는 행동은 입으로 빨거나 만지는 것과 같이 무분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강진아, 1998) 물체에 손을 뻗치거나, 쥐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등 더욱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김옥련, 1978; Hutt, Tyle, & Christopherson, 1989)은 영아의 모든 행동들은 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놀이와 탐색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탐색과 놀이는 보는 이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같은 행동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즉, 영아가 활발하게 탐색하는 동안 놀이로 전

환할 수 있고, 다시 놀이 활동 중에 탐색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놀이 행동들은 탐색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는 그 상황과 매력을 전체적으로 살핌으로써 영아의 탐색행동과 놀이행동을 좀 더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영아기의 놀이 유형

영아기의 놀이의 형태에 따른 놀이유형을 분류한 학자는 Hughes(1991)와 Kostelink(1988)이다. Hughes(1991)는 영아의 놀이 형태에 따라 감각운동 놀이(sensorymotor play), 연습놀이(practice play), 사물놀이(play with object), 상징놀이(symbolic play) 또는 역할놀이로 구분하였다. 감각운동놀란 영아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행위가 본능적으로 재미있고 욕구 충족적이어서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놀이형태이다. 사물놀이는 사물에 대한 의도적 조작을 통해 한정된 흥미를 발산하는 놀이이다. 상징놀이는 정신적 표상을 활용하여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가상 - 전환하는 행동이 나타난다(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경서, 1999. 재인용).

Kostelink와 그의 동료들(1988)은 1, 2세 영아의 놀이를 탐색행동, 사물놀이, 극놀이, 구성놀이, 동작놀이 등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물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탐색행동(exploratory behavior),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사물놀이(play with object),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역할을 시도해 보며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극놀이(dramatic play), 사물을 연결하고 분리시키는 구성놀이(construction play), 움직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동작놀이(play with movement)로 분류하고 있다. 영아기 놀이 행동의 발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들(Belsky & Most, 1981; Fenson, Kagan, Kearsley, & Zelazo, 1976)에서는 영아기 놀이행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생후 6-9개월에는 한 번에 하나의 사물을 갖고 그 사물의 속성에 따른 탐색 행동을 보인다. 12-15개월에는 두 개의 사물을 갖고 관계를 만들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15-18개월에는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체 하는 등의 가작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18-24개월에는 각 사물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두 사물을 연결시키는 기능적 관계, 인과 관계, 기능과 의미적 특성에 의한 범주 관계가 나타나며 본격적인 상징놀이가 발달한다(이수연, 2001, 재인용).

연령별로 영아의 놀이 특징을 살펴보면 유선 생후 일년동안은 감각놀이 혹은 연습놀이를 함으로써 감각활동이나 운동 활동을 반복적으로 즐기며, 이러한 놀이형태는 점점 지적발달을 통해 섬세한 놀이로 발달하게 된다(유은영, 2000, 재인용). 1세가 되면서 견제 되는 시기가 되면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자신의 조작으로 인해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는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모방능력이나 가상 능력이 나타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즐기게 된다.

영아는 이처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감각 운동적인 능력과 기능을 형성해 나간다.

3) 영아기의 놀이감

영아는 생의 초기에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만지고, 빠는 미분화된 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자신의 신체가 아닌 외부 물체를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탐색하면서 사물을 이용한 놀이(object play)가 나타난다(조윤정, 2001, 재인용). 영아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 놀이감이 될 수 있으며 놀이감을 탐색하고 조작하는 과정 중에 영아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따라서 영아의 놀이와 생활에 있어서 놀이감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가치로운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Piaget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행동도식에 사물을 동화시키는 한편 사물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Vygotsky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놀이감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는 영아의 발달에 놀이감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놀이감은 여러 유형의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을 촉진하여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놀이감의 구조화 정도는 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조화가 높은 사실적인 모양의 놀이감이 2~3세 영아에게는 가상놀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상상력이 덜 발달된 영아일수록 실제 사물을 제시하면 가상놀이를 격려할 수 있게 된다(최정윤, 2005).

놀이감은 영아의 놀이를 유발하고 촉진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인 행동과 접촉을 증가시키고 또 더 오랜 시간 놀이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아에게 주어지는 놀이감에 따라 놀이의 방법, 유형과 경험이 달라지고 놀이행동도 영향을 받게 된다.

1세가 되면 걷기는 물론 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으며, 대개 컵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관심 영역이 확대되며, 혼자 사물을 조작하고 탐색하며 새로운 활동을 즐기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영아들은 운동 기능을 자극하고 행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감을 선호한다. 영아에게 적절한 놀이감으로는 신체활동을 돕는 바퀴가 달린 탈것, 끌차, 유모차 등과, 물체를 탐색하고 조작하는 소근육 활동을 제공하여 협응력과 집중력을 길러주고, 특히 영아의 행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소리 나는 조작 놀이감이 좋다. 또한 초보적인 상상놀이가 나타나므로, 놀이감이 세밀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사물과 유사한 인형, 소꿉 놀이감, 모형 사물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놀이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주 많은 놀이감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놀이감들 가운데 바람직한 놀이감을 선택하는 기준은 영아의 발달에 맞고 영아 스스로 조작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 발달을 지지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표 1은 만 1세 영아의 놀이실 구성 및 적합한 놀이감이다(최정윤, 2005).

<표 1> 만 1세 영아의 놀이실 구성 및 적합한 놀이감

영역	교구 · 교재
신체영역	<p>쌓기 놀이감 / 두툼한 바닥깔개(카펫, 스펀지 매트) / 대형 스펀지 블록 / 안전거울(깨지지 않는 거울) / 끈으로 당기는 놀이감 / 유모차, 인형 유모차 / 낮은 평균대 / 비닐 수영장, 불풀용 공 / 오를 수 있는 기구(정글짐, 타워짐, 사다리, 상자) / 바퀴달린 놀이감 / 자동차 류(수레, 세발자전거, 끌차) / 흔들 보트, 흔들 말 / 큰 공 / 그네 / 시소 / 미끄럼틀</p>
언어영역	<p>책꽂이(형겅 책꽂이) / 흔들의자, 쿠션, 소파 / 그림책 (한 면에 그림이 하나씩 그려 있는 책) / 형겅 책 / 동화자료(용판, 막대, tv 동화) / 인형(손인형, 막대인형, 형겅인형) / 그림카드</p>
탐색영역	<p>다양한 크기의 공 / 깨지지 않는 다양한 크기의 컵, 그릇 / 손으로 흔들면 소리 나는 것 / 빠는 부분이 있는 컵 / 물, 모래 놀이대(감각놀이대) / 물놀이감(물에 뜨는 놀이감, 다양한 용기, 플라스틱 튜브, 스펀지, 물에 젖지 않는 인형, 물레방아) / 비닐 앞치마 / 플라스틱 숟가락 / 큰 페그와 수세기판 / 간단한 분류 놀이감 / 다이얼이 있는 놀이감 / 색깔있는 큰 구슬 / 모양상자 / 작은 블록(앉아서 조작이 가능 한 것) / 퍼즐류(그림맞추기, 숫자맞추기, 도형맞추기, 색깔맞추기) /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자료(지퍼, 단추, 끈 꿰기) / 장난감 망치</p>
창의영역	<p>각종 종이류(모양, 색, 질감, 크기, 두께가 다른 것) / 비닐 앞치마 / 낮은 이젤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 풀, 테이프, 안전가위 / 폐품(상자, 강통, 천 조각 등) / 수수깡 / 가족사진 / 밀가루 점토와 도구 / 소형 스펀지 블록 / 종이벽돌 블록 / 보들이 블록 / 크고 작은 자동차류 / 여러 가지 인형 / 나무, 고무로 된 작은 동물 / 인형 / 녹음기 / 여러 종류의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 리듬악기류 / 놀이집, 레이스로 만든 집</p>

다음으로 영아의 놀이감 중 탐색과 놀이를 반복함으로써 학습과 발달을 지지해 주며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등 폭넓은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는 블록과 블록놀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3. 블록놀이

1) 블록놀이의 교육적의의

블록이 유아의 놀이감으로 사용된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블록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놀이감이 17세기 말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블록이 유치원 환경에 도입된 시초는 19세기 상반기 프뢰벨이 제작한 은물에서 부터이며 세 번째 은물에서부터 여섯 번째 은물은 블록의 체계로 되어 있다(Provenzo & Brett, 1983). 그 후 Pratt이 단순한 모양과 자연스러운 비율로 유니트 블록을 발명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개발된 블록 중 가장 정교한 블록이었으며, 초기에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진 쌓기가 복잡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유아가 매우 선호하는 놀이 자료중의 하나가 되었다(Gura & Bruce, 1992). 블록은 19세기 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보편적 놀이감으로 인식되면서 블록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해졌고 나무, 종이, 작은 돌 등의 재료로 된 블록과 현재와 같은 디자인의 블록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와서 아동연구와 새로운 철학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가진 여러 가지 블록들이 제작되어 유아기 교육에서 학습방법으로 블록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블록은 영유아의 역동적인 놀이를 조장하는 효과적인 놀이감이며, 블록을 이용하여 유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 놀이감으로 그 특이성이 인정되고 있다(박화문, 2000, 재인용).

블록은 다양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다. Winsor(1974)에 의하면 블록은 유아의 다양한 구성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사회학습 및 수학, 과학, 읽기에 대해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박찬옥(2002)은 블록은 개방적이고 다목적적인 놀이매체로써 유아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블록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놀이는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영유아들은 블록을 들어 올리고 쌓아올리며 운반하여 복잡한 구성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대·소근육 운동능력 및 신체조절능력과 같은 신체적 기술을 발달시킨다(박찬옥 외, 2000). 즉 블록을 균형에 맞게 놓거나 모서리를 맞추는 등의 동작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 손과 손가락의 조작력, 시지각력, 대·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진다(박현주, 1999; Hirsh, 1974). 큰 나무토막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반하는 일도 신체적 기능이 요구되며, 선반에서 나무토막을 내리면서 그것을 들거나 올려놓으면서 세부적인 근육조절을 익히게 되고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깨, 허리, 팔 등의 근육을 발달시키게 된다(유효순 외, 1992).

둘째, 블록놀이는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블록은 영유아 스스로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수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정서를 해소시키게 하는 자료이다(Cartwright, 1988). 즉 블록은 깨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들은 구조물을 자유롭게 만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너뜨리는 자체를 즐기면서 놀이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블록 완성물을 넘어뜨리면서 정서이완의 경험도 제공받게 된다(Day, 1983; Moffitt, 1974). 블록놀이는 몇 개만 가지고도 구조물을 완성하며 자기가 만든 것에 만족이나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반복하여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유효

순, 1992; Adams & Nesmith, 1996; Baker, 1989; Cartwright, 1988). Rogers(1987)도 블록을 통한 놀이는 영유아의 사회적 기술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셋째, 블록놀이는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 블록은 그 자체가 수학적 비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유니트 블록은 높이, 넓이, 길이의 기본비율이 1: 2: 4로, 이 비율을 확대하거나 분할하여 다양한 크기의 블록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블록은 영유아의 수학적 개념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Hirsh(1974)에 의하면 블록을 구성하는 데는 일대일 대응, 수세기, 짝짓기, 분류, 공간에 대한 지각 등 많은 구체적 조작이 포함되므로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블록 놀이를 할 때 영유아는 블록을 옆에 나란히 놓거나 떨어지게 놓아 근접과 분리에 대해서 알게 되며 비슷한 종류의 블록끼리 쌓거나 세워봄으로써 분류와 유목화의 능력을 기르게 된다.

영유아는 블록구성물을 조작하며 평형, 균형, 안정성을 알게 되며, 블록이 안정된 균형을 이루도록 블록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블록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균형을 중앙 점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운다. 또한 보다 높은 블록구성을 위해서는 바닥이 넓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좌우, 상하의 무게와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물을 제작함으로써 안정감 있고 조화로운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박찬옥, 2002).

넷째, 블록 놀이는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 영유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쌓아가는 과정에서 형태인지와 형태변별력이 발달되어 쓰기,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된다. 유효순(1992)은 다른 영유아와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교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블록의 형태, 크기, 위치, 상호관계 개

념에 필요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어 어휘발달을 돕는다(박찬옥, 2002).

다섯째, 블록놀이는 조형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Hirsh(1974)는 블록을 가지고 단순하고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대칭과 균형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되며 여러 가지 입체 구성력도 증진된다고 하였다. 박찬옥(2002)에 의하면 블록놀이는 영유아의 조형능력을 발달시키며 영유아들이 새로운 구조물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섯째, 블록놀이는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블록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 구조화된 놀이감이기 때문에 영유아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블록을 다리, 길 또는 우주선 등 다양한 구성놀이를 하는 동안 무한한 창의력이 증진될 수 있다(김명애, 1992; 이숙재, 1993; 오은순, 1994).

이처럼 블록은 다양한 놀이에 활용되므로 영유아는 블록놀이를 하는 가운데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 정서, 사회, 언어발달 이외에도 조형능력의 발달 등 자연스럽게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블록이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통합적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선, 1990).

2) 블록놀이의 발달단계

블록놀이의 발달단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Johnson(1974)의 연구로서 그는 수년 동안 유니트 블록과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2~6세까지 나타나는 영유아의 블록구성발달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영유아들은 연속적인 블록놀이의 7단계를 통해 블록 쌓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영유아의 블록구성 기술의 발달은 유아가 발달의 단계를

거치듯이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유아가 블록 쌓기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때 이전단계에서 사용된 전략들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입각하여 이전 단계로부터 나온 디자인 요소들을 유지하며 블록 놀이를 진행한다. 이것은 영유아가 초보적인 낙서를 점차 기하학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그림발달단계와 유사하다. 블록 쌓기 단계는 균형, 공간적 관계, 대칭에 관한 영유아의 인지적인 이해와 상상놀이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며, 각 쌓기 단계의 특성은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Johnson이 제시한 블록 쌓기의 7단계를 기술해 봄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블록구성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재선, 1990, 재인용).

(1) 1단계: 블록 나르기(Carrying)

2세 이하의 아주 어린 영아들이 블록이나 비슷한 장난감에 보이는 반응으로 블록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인 블록구성은 어렵다. 이 단계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단순히 블록을 운반하고 블록을 쏟아내고 다른 영유아가 만든 구조물을 헐어 넘어뜨리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영아는 새로운 소리를 탐색하기 위해 블록을 부딪칠 수도 있다. 영아는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료를 완전히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2) 2단계: 쌓기(Stacking)

이 단계의 특징은 반복적인 블록의 쌓기이다. 이 단계부터 나타나는 블록의 구성은 블록을 수직으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줄을 만들기 위해 수평으로 놓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쌓는 특징을 나타낸다. 블록 쌓기 구성이 시작되고 할 수 있으며 주로 혼자놀이를 하고 옆의 또래와 병행적으로 쌓기를 하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없다.

(3) 3단계: 다리 만들기(Bridging)

이 단계의 특징은 다리를 만들 듯 쌓는다는 것이다. 즉 두 개의 블록을 마주 세운 후 세 번째 블록으로 그 둘을 연결시켜 다리를 만든다. 수직으로 세워진 블록들은 다리역할을 하는 블록을 위해 적절히 떨어진 장소에 놓여져야만 하며 다리 역할을 하는 블록은 수직으로 세워진 2개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블록들 위에 충분한 길이로 놓여져야만 한다. 이 일은 영유아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여러 길이의 블록들을 가지고 다리를 놓아보는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며, 영유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리 만들기를 계속해서 시도한다. 어떻게 다리를 놓는지 배운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4) 4단계: 울타리 만들기(Enclosures)

이 단계의 특징은 블록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다. 영유아는 공간을 둘러싸기 위해서 블록들을 사용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며 일단 울타리 쌓기를 성공하면 영유아는 울타리 쌓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울타리 쌓기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도구들을 다룰 줄 알게 되고 더 융통성 있고 덜 엄격한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기 시작한다.

(5) 5단계: 패턴과 대칭(Pattern and symmetry)

이제 이 단계의 특징은 대칭과 균형, 아름다운 장식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대칭적인 패턴을 지닌 균형 잡힌 구조물을 쌓는다. 아이들은 블록을 다루는데 있어서 숙달된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멋진 블록 구조물을 쌓기 위하여 다른 아이의 블록을 기웃거린다던지 다른 도구들을 찾으러 블록을 넣어두는 선반을 보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구조물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블록을 극놀이의 도구로서 놀이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6) 6단계: 초기 구상표현(Early representational)

이 단계에서의 특징은 유아는 이전에 학습된 쌓기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며 블록 구성 및 디자인의 기초를 잘 이해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들이 만든 것에 이름을 붙이지만 그 구조물은 이름과 닮지 않아도 된다. 즉 블록 구성물은 상징적 표상물이라 할 수 있으며 블록으로 물체를 구성할 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극화놀이도 협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이들이 구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교사들의 질문에 의해 주로 이끌어지게 된다. 이 단계는 완성된 구조물을 놀이에 이용하는 것과 구조물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로서 특징화 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7) 7단계: 후기 구상표현(Later representational)

이 단계에서는 블록 구조물에 이름 붙이기가 더 일반적이 되며 유아는 구성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알리기 시작한다. 구조물은 친숙한 건물들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블록놀이는 그들의 놀이 속에 사회적 지식의 통합을 보여준다. 영유아는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실제적인 삶의 맥락 속에 있는 전형적인 행동들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나타낸다. 즉 블록 구조물은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며 상징적 표상물으로써 물체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이 확실해진다.

3) 영아를 위한 블록 놀이감

영아들은 제공되는 쌓기 놀이감을 통해 감각적으로 탐색과 놀이를 반복함으로써 학습과 발달에 도움을 받으며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등 폭넓은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다. 블록은 영아들의 즐거움과 근육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자료이다. 다음의 표 2는 만 1세 영아를 위한 블록 놀이감이다.

<표 2> 만 1세 영아를 위한 블록 놀이감

<p>부드러운 단위 블록</p>	<p>이 블록은 나무 단위 블록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부드럽다. 가볍고 색깔이 있으며 안전하다.</p>	
<p>크고 부드러운 블록</p>	<p>크고 부드러운 블록으로, 어떤 것은 단단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꼭 끼워서 만든 플라스틱 "표면"이며, 어떤 것은 색깔 있는 부드러운 시트를 씌웠다. 다른 크기와 모양, 색깔로 되어있다.</p>	
<p>부드러운 감각 블록</p>	<p>색깔이 있고 천으로 된 속이 빈 블록이다. 각 면에는 서로 다른 질감의 천으로 쌓여있다.</p>	
<p>종이 벽돌 블록</p>	<p>벽돌 같은 모양과 무늬로 된 종이 벽돌 블록으로, 가볍고 쌓기 쉽다. 찌그러지지 않고 색깔이 있으며, 여러 가지 크기로 되어 있다.</p>	
<p>영아용 DUPLO 블록</p>	<p>잡기와 쌓기 쉬운 점보크기의 DUPLO블록이다.</p>	
<p>쌓거나 포개는 컵</p>	<p>각기 다른 컵 안에 꼭 맞게 들어가거나 각기 다른 것 위에 쌓아 탑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놀이감이다. 보통은 한 세트에 10개의 컵이 들어 있다.</p>	

쌓는 고리

크기에 따라 눈금이 새겨있고 한 가지 형태로 통일된 플라스틱 고리이다.



예) 토미 쌓기 오투기

**찍찍이
블럭**

색깔 있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각 먹은 서로 쉽게 붙을 수 있고,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되어있다.



예) 찍찍이 블럭(제작)

4. 선행연구

영아기의 놀이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Belsky & Most, 1981; Fenson, Kagan, Kearsley, & Zelazo, 1976) 영아기 놀이행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2~15개월 시기에는 두 개의 사물을 갖고 관계를 만들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15~18개월에는 인형에게 음식을 먹이는 체 하는 등의 가작행동이 나타난다. 그리고 18~24개월에는 각 사물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두 사물을 연결시키는 능력인 기능적 관계, 인과관계, 기능과 의미적 특성에 의한 범주 관계가 나타나며 본격적인 상징놀이가 발달한다(이수연, 2001, 재인용). 즉 놀이기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연한 행동이나 놀이감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하고 새로운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상징놀이의 징후가 보이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성지현, 2000, 재인용).

영유아의 블록놀이 연구는 대부분이 관찰이나 실험을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 양상, 행동특성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수치화 한 방법을 사용한 것

으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선(1990)은 쌓기 놀이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3·4·5세 유아가 유니트 블록으로 만든 구성물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만든 것은 자동차길 만들기와 집 만들기이며, 높은 연령일수록 더 발달된 형태의 구성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 구성놀이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블록과 발달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구현아, 1996; Day, 1983; Hirsch, 1984; Rogers, 1987)에서는 3·4·5세 유아의 블록놀이 발달단계는 연령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사용한 블록의 개수와 종류 수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블록 구성놀이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과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박경희, 1989; 오은순, 1994; Chi, 1991)의 연구에서는 공간 블록놀이는 집단놀이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유니트 블록놀이는 단독놀이와 병행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관찰되어 유니트 블록놀이는 영유아의 여러 가지 유형의 놀이 수준을 경험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블록에 대한 영유아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Alystyne, 1932; Clark, Wton & Richards, 1969; Kinsman & Berk, 1979; Rogers, 1982)를 살펴보면 블록은 영유아들이 매우 선호하는 놀이감 중 하나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쌓기 놀이 영역에서 영유아들이 다른 놀이감보다 가장 오랜 시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쌓기 놀이에서의 교사개입에 관한 연구(김경란, 1994; 신상인, 1991; 임기순, 2000; 윤은미, 1999)를 살펴보면 교사의 개입에 따라서 유아의 블록 놀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블록놀이가 영유아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이 블록놀이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맥락적인 의미 파악 및 블록놀

이의 경험적 과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참여 관찰 및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경순(2003)은 유아들이 블록 쌓기 놀이를 선호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참여 관찰한 결과, 만드는 기쁨과 성취감, 부수는 즐거움과 가상놀이를 통하여 세계를 소유하며 경험하는 기쁨 때문에 선호한다고 하였다. 쌓기 놀이의 진행과정과 쌓기 놀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 및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성은주, 2001)에서는 블록 놀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소품이 첨가되었을 때 쌓기 놀이 진행과정과 주제 확장 활동 및 자원의 활용정도를 살펴본 연구(신유경, 1999)에서는 놀이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구성놀이의 질적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놀이 지속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McCall(이영주, 1983, 재인용)은 1세부터 6세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관찰해 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였다. Christie와 Wardle(1992)는 4~5세 영유아의 놀이시간에 관한 연구에 영유아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블록놀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블록놀이와 사회성 발달을 연관시켰거나 블록놀이 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영유아가 만든 구성물 자체를 분석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최근에 영아의 블록놀이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졌으나(이매란, 2003; 임혜영, 1999; 서경혜, 2005) 이 연구들은 주로 2세 이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블록놀이를 구성놀이 및 상징놀이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만 1세 영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블록놀이 특성이 어떠한지 관찰·분석을 통하여 영아에게 블록놀이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 및 경험의 과정을 이해하며 영아의 블록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구방법 및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

기로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기관 선정과 교육적 환경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있는 K 어린이집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K어린이집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직장보육시설로,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3층으로 된 단독 건물로, 어린이집의 바깥 놀이터에는 영아 실외놀이터와 모래놀이터가 함께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유아 실외놀이터가 있으며, 2층에 옥상놀이터가 있다.

어린이집은 만 1세반 1학급, 만 2세반 2학급, 만 3세반 1학급, 만 4세반 1학급, 5세반 1학급으로 총 5학급, 125명의 원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구성은 6개의 교실과 주방 겸 식당, 원장실, 교사실, 시청각실로 되어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만 1세반 담임교사 4명, 만 2세반 각각 담임교사 2명, 만 3세반 담임교사 3명, 만 4세반과 만 5세반 담임교사 2명이다. 평일 정규 일과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고, 통합 보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등원과 귀가는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어린이집은 아동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을 근간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영아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영아의 전인발달을 목표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탐색 및 놀이를 통해 자율성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신입 및 경력 교사 내부교육 및 외부 교사교육, 교사 장학, 국내 학술대회, 다양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연계 프

로그램 및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연간계획을 세워 부모교육 세미나, 부모교육 안내 책자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대상지로 K어린이집을 임의표집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K어린이집은 연구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및 교수방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가 풍부하고, 또한 원장 및 교직원과의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요청에 대한 대화를 비교적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어린이집의 만 1세 영아들의 하루 일과 중 자유놀이 시간에 일어나는 블록놀이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연구자의 적극적인 관찰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는 연구자가 만 1세 영아의 놀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편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Patton(1990)이 연구대상지는 연구 주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경순, 2003, 재인용).

2) 맑은 반의 교육적 환경

연구 대상 반인 K어린이집의 만 1세반 맑은반은 어린이집의 1층 오른쪽 제일 끝에 위치한 학급이며 교실면적은 22평으로 아동 1인당 면적이 1.5평이다. 교실공간은 창의영역,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기저귀갈이 영역의 5개의 흥미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교실 벽면에는 생활주제와 관련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게시 되어 있고, 학기 초의 특성상 적응하는 기간을 위하여 영아의 가족사진 및 익숙한 물건과 흥미영역별 교재교구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사진 1> 언어영역



<사진 2> 탐색영역



<사진 3> 창의영역



<사진 4> 창의영역



<사진 5> 기저귀갈이영역



<사진 6> 신체영역(블록)

블록영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신체영역에 포함되어 교실의 한쪽에 위치하여있다. Hirsch(1996)가 블록놀이를 위하여는 교실 바닥 공간의 3분의 1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고, 소음방지를 위해 커다란 카페트도 놓여있다. 블록영역은 플랫폼과 함께 위치하였고, 탐색영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되어 있다.

블록교구장은 영아들의 손이 닿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로서 ‘一’ 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블록들이 교구장에 정리되어 있고 교구장 위 선반과 바닥에도 블록과 소품들이 바구니에 담겨져 놓여 있다. 블록놀이를 위해 제공된 블록은 스폰지 블록, 종이벽돌 블록, 코코블록, 레고 블록, 우레탄 블록, 보들이 블록, 컵 블록이고, 블록의 소품으로 플라스틱 동물 인형, 레고 사람 모형, 보들이 공 등이 있다.

3) 교사와 영아

본 연구의 대상은 K어린이집의 만 1세반인 맑은반(가명) 영아 15명이다. 맑은 반은 12개월에서 24개월 영아(평균 15.4 개월)들로 남아 11명, 여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맑은반 담임교사는 4명으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이 1:4이다. 담임교사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6년, 4년, 2년, 1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담임교사는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상냥하며 진솔하게 영아들을 대하였으며, 영아들에게 허용적이고 다정다감한 태도로 상호작용하였고, 영아들의 요구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려고 노력하였다. 담임교사는 영아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 맑은 반이 연구반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흔쾌히 승낙을 했으며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서 연구를 도왔다.

4) 맑은반의 하루일과

본 연구의 관찰 학급인 맑은 반은 등원하여 교사나 부모의 도움으로 옷을 벗어 개인 서랍장에 정리 한 후 놀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정적인 놀이를 한 뒤 오전 간식을 먹고 놀이를 시작한다. 대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영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며 놀이를 하는데에 오전 자유

놀이시간을 보낸다. 점심식사 후 이를 닦고, 기저귀를 갈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낮잠 준비를 하였고, 낮잠시간 이후의 일과는 오후간식을 먹고 실내 자유놀이를 하고 이때부터 부모와 개별적으로 귀가 한다.

<표 3> 맑은반 하루 일과의 예

시 간	활 동
7:00 ~ 8:30	등원 및 실내놀이
8:30 ~ 9:10	손 씻기 및 오전 간식
9:10 ~ 10:20	오전 실내 자유놀이 및 전이 활동
10:20 ~ 11:10	실외놀이 및 산보하기
11:10 ~ 12:00	점심 준비 및 점심 식사
12:00 ~ 12:30	이 닦기, 대소변가리기, 기저귀 갈기
12:30 ~ 15:30	낮잠 준비 및 낮잠
15:30 ~ 16:30	정리 및 오후 간식
16:30 ~ 17:30	세수하기 및 옷 갈아입기
17:30 ~ 18:30	실내 자유 선택활동 귀가 지도
18:30 ~ 20:30	통합보육

2.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1)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사전에 K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장 선생님과 담임교사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를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영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 래포를 형성하고 학급의 일과운영, 교실내의 특별한 규칙, 연구자가 지켜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였다.

또한 관찰한 내용을 현장에서 빠르게 메모하는 훈련을 하고, 연구자가 항상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에 영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비디오 촬영을 2회 실시해봄으로써 영아들의 놀이상황을 잘 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를 선정하였다. 특히 영아들의 놀이 특성상 일정한 공간에서의 놀이가 아니라 교실 전체를 놀이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비디오 촬영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시도하여 블록놀이 영역이 가장 잘 관찰되며, 교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영아들의 놀이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영아들이 사진촬영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도록 시도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이 연구자의 사진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놀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 연구자가 아닌 담임교사 1인이 사진촬영에 도움을 주었다. 담임교사는 영아들의 활동을 포트폴리오하여 매일의 놀이상황을 사진촬영 하였기 때문에 영아들이 익숙하였으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예비관찰 기간에 관찰의 주된 장소가 될 블록영역의 물리적 환경을 보완하여 놀이감을 재배치하고 보완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관찰 기록지의 적합성을 파악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영아들의 블록놀이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0일부터 2006년 5월 4일까지 총 7주 동안 148시간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1) 참여관찰

“어떤 사람의 생활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권경숙, 2002, 재인용)으로 영아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영아의 놀이 특성과 같은 상황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종종 몸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므로 관찰자는 영아가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형적·내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해야 한다(Bailey, 1989).

참여관찰은 2006년 3월 20일부터 2006년 5월 4일까지 총 7주 동안 주 3~4회에 걸쳐 총 27회 실시되었다. 관찰은 자유놀이 시간(오전 9:10 ~ 10:20)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블록놀이에서의 영아들의 놀이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블록영역에 머물면서 소형 수첩에 현장 약기로 놀이상황을 기록하였다. 영아들의 블록놀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하여 영아들의 블록 놀이가 진행되기 시작한 후, 약 5분이 경과한 이후부터 관찰하였으며, 기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날그날 약기된 내용을 관찰일지의 형태로 노트화 하고 특별한 사건이나 놀이 특성, 연구주제에 대한 생각, 관찰 상의 어려움, 자기반성의 소리 등을 기록하였다.

참여관찰 초기에는 영아들이 연구자가 들고 있는 필기도구 등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일상적인 일로 여기면서 흥미를 보이는 행동이 소거되었다.

담임교사 또한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다소 부담스러운 듯하였으나,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기 위한 관찰이 아님을 강조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2) 교사면담

교사와의 면담은 영아들이 낮잠을 잘 때나 점심시간 등 일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영아의 놀이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나 영아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시도하였다.

영아의 블록놀이에 대한 교사의 배경적 설명이 필요한 시기에는 교사가 촬영한 사진과 연구자의 관찰된 내용을 교류하며 놀이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나, 이해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사와의 면담은 현장 면담 이외에 관찰기록 전사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경우 시도하였으며 면담자료에 대한 기록은 교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에 전사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3) 문서수집

연구 주제와 관련지어 내용 분석을 위한 참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지침서, 프로그램 안내 책자, 교육계획안, 교육일지, 관찰일지 등 서면적 배경서류를 수집하였다.

(4) 사진과 비디오 촬영

관찰은 한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관찰자는 영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숨겨진 행동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관찰시간과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어 관찰시간동안 담임교사 1인의 도움으로 영아의 블록놀이를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참여관찰 27회 중 15회 비디오 촬영을 하여 자료 분석 시 관찰내용과 해석을 재검토 하는데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관찰시간 내에 현장에서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들의 놀이 특성을 약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놀이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이 어려웠다. 이에 사후에 비디오 촬영 내용을 보며, 영아가 선호하는 놀이감 종류와 사용개수는 특정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대한 정보 수집법인 사건표집법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아가 새로운 블록놀이감을 선택하여

놀이하는 놀이감과 개수를 계산하여 기록하였고, 블록놀이 지속시간은 영아가 블록영역에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녹화자료는 관찰시간 내에 미처 관찰되지 못한 영아의 블록놀이 내용을 다시 해석하고 재검토 하는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자료의 타당화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Marriam(1998)이 제시한 집중적인 관찰, 삼각측정법, 심층적 기술-세부적 묘사, 참조자료의 사용,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 연구 국면에 대해 계속 묻고 평가하는 자기 감시 과정 등 7가지 준거에 초점을 두고 연구 준비기간 부터 관찰기간, 분석기간, 결과 작성기간 등의 연구 전반을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1) 수집된 자료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의 놀이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집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분석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표 4> 수집된 자료의 종류

현장기록 사본	현장약기(field-note) (2권) 관찰지 (135장)
면담내용 전사본	면담기록 (32장)
문서수집	교육과정 지침서 / 프로그램 안내 책자 / 교육계획안 / 교육일지 / 관찰일지
사 진	349장
비디오테이프	15회의 녹화 테이프

2) 자료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녹화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현장 기록지를 근거이론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를 분석의 도구로 하여 전사된 현장기록과 면담 기록은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관찰과 동시에 진행되는 반영적 기록(reflexive journal)인 현장일지를 바탕으로 의문점을 분석하고 다시 관찰하는 식의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해나갔다.

연구자는 ‘질적 분석가는 비판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 즉 분석의 과학적인 측면 및 예술적인 측면 모두에 의존하여 분석에 임해야한다’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가르침을 새기며 개방 코딩에 임하였다(이경순, 2003). 약기한 내용을 세밀히 읽으면서 줄 단위 분석(line-by-line)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범주를 재빨리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더 심도 있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함으로서 범주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코딩을 통해 놀이상황의 내용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 한 후에 일반적 놀이 특성과 놀이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분류하고, 그 후 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위 범주들을 연계하고 통합하였다.

IV. 영아의 블록놀이에 대한 이해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집된 현장 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은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영아의 블록놀이에는 몇 가지의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영아의 블록놀이는 만 1세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포함하고 있어, 월령별로 비슷한 놀이 양상을 나타내며 그 놀이 특성이 맥락을 같이하나, 영아의 개인적인 발달 및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어린 월령의 영아가 발달 수준 이상의 놀이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놀이 특성인 영아들이 블록놀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블록 놀이감의 종류와 놀이감의 사용 개수 및 놀이 지속시간을 알아보았으며, 영아들의 놀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블록놀이 특성이 어떠한지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

1)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블록의 종류

관찰을 통해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블록 놀이감을 알아본 결과 만 1세 영아들이 선호하는 블록놀이감은 종이벽돌 블록과 스폰지 블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은 대부분 조작이 쉽고, 운반이 용이한 크기가 큰 블록을 선호하였다. 다른 블록에 비해 다소 크기가 큰 종이벽돌블록이나 스폰지 블록은 구성물을 만들 때 몇 번의 움직임으로 쉽게 구

성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영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영아들이 블록놀이에서의 대부분 활동이 블록을 높이 쌓고 부수고, 길게 나열하는 등의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사각형 모양에 면이 평평한 것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쌓기에서의 실패를 줄여주고, 보다 쉽게 쌓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월령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월령이 어린 영아들이 크기가 조금 더 큰 코코블록을 선호하고, 월령이 높은 영아들이 다소 작은 레고블록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8개월의 영아들은 주로 대 근육을 사용하여 크고 조작성이 간단한 블록 놀이감을 사용하였고, 19~24개월 영아는 레고 블록이나 코코블록 등 소근육을 보다 많이 사용하여 조작성이 있는 놀이감을 사용 하였다. 또한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블록 구성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사실적인 것과 가깝게 구성되기 때문에 19~24개월의 월령이 높은 영아들이 블록 구성활동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보다 다양한 블록의 종류를 연합하여 사용하였다.

2)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블록의 사용개수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놀이감의 사용 개수는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주된 활동이 블록 쌓기와 블록 나열하기인데 보통 3~4개의 블록을 사용하면 영아의 키 보다 높아지거나, 불안정한 형태로 되어 더 이상 높게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블록을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놀이감의 사용개수에서도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수의 블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발달단계에서 영아들은 월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구성물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블록을 사용하였다. 쌓기 활동시에도 월령이 높은 영아들은 보다 정교한 쌓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이 쌓고, 나열하기가 가능

하고, 구체적인 구성물 만들기가 가능하여 많은 블록 사용함. 또한 단순히 블록의 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령이 어린 유아들은 한 종류의 블록 또는 두 종류의 블록을 선택하여 놀이하는 반면, 월령이 높은 유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블록 종류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놀이가 나타나 놀이감 사용개수에 영향을 주었다.

3) 영아의 블록놀이 지속시간

영아의 블록놀이에서의 지속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영아의 놀이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놀이를 마치고 다른 놀이영역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유아들은 블록영역에서 평균 207.64초의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블록놀이 지속시간은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월령이 12개월~18개월인 유아는 평균 138.63초의 블록놀이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19개월~24개월인 유아는 평균 276.64초의 블록놀이 지속시간을 나타내어 월령이 높은 영아의 블록놀이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블록놀이를 하였다. 연령에 따라 구성놀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월령이 높은 유아일수록 좀 더 많은 수의 블록 놀이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블록놀이에서 유아들은 월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빈번히 하여 또래의 구성물 옆에 블록을 나란히 놓아보거나, 또래의 구성을 모방하여 쌓기 활동을 하고, 놀이감을 주거나, 구성을 돕는 등의 행동으로 유아들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에 대한 집중시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면서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띄었다.

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수집된 현장자료들과 관련문헌들을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영아가 블록놀이를 하는 동안 일어나는 놀이 행동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나타났다. 영아가 보인 블록놀이의 특성은 자유롭게 탐색하기,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 같은 활동 반복하기,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이다. 이와 같은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에 대해 관찰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롭게 탐색하기 (비의도적인 탐색)

영아의 블록놀이를 통한 탐색활동은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탐색활동은 주로 월령이 낮은 영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블록을 밀고, 굴리고, 얼굴에 비비거나, 입으로 빠는 등 자신의 몸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블록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아의 블록 탐색활동을 공통 요소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2가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하는 블록놀이 특성을 신체를 이용하여 블록 탐색하기, 블록의 물리적인 변화 탐색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1) 신체를 이용하여 블록 탐색하기

교실내의 영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놀이감은 모두 영아의 탐색 대상이 되었다. 특히 블록영역에서의 탐색활동은 공간과 놀이감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영아의 탐색활동을 지지해주었다. 연구자는 관찰기간 동안 블록영역에서의 신체를 이용한 탐색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준이(12개월)와 규현이(13개월), 진이는(15개월) 블록 놀이에서 블록을 빨고, 만지작거리고 비비고, 블록을 밀거나 굴리는 등 자신의 감각과 신체를 이용해 블록을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Johnson(1962)이 제시한 블록을 통한 구성놀이 발달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숙재(2004)는 Johnson의 블록 발달단계의 1단계를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는 단계로 정의하고, 2살 된 어린이에게 블록을 주면,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고 무엇을 만드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으며, 주로 블록 탐색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관찰을 통해 영아들의 블록놀이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탐색활동은 2세 이전의 보다 어린 연령의 영아에게서도 빈번히 관찰되었으며, 그 탐색활동도 매우 다양하였다.

다음은 현준이가 보들이 블록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현준이는 가장 월령이 낮은 영아로, 블록놀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았으며, 놀이 지속시간도 다소 긴 편이었다. 현준이는 여러 모양의 보들이 블록 중에서 원기둥 모양의 블록을 손으로 만져보고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눌러보는 등의 활동을 반복하면서 보들이 블록을 신체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탐색하였다.

현준이는 바구니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 중 보들이 블록 바구니에 다가가 노란색 원기둥 모양의 블록을 오른손으로 한 개 잡고서는 카페트에 앉는다. 가지고 온 블록을 카페트에 내려놓고는 왼손으로 블록을 누른다. 그리고는 보들이 블록을 양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다 넣고 뽀 후, '툼' 하며 얼굴을 찡그리더니, 얼굴로 비비는 행동을 한다. 조금 따갑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카페트에 내려놓고 보들이 블록을 양손으로 누른다. (2006. 4. 3. 관찰)

다음은 현준이가 코코블록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현준이는 빨간색 코코블

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에 누르는 자극을 주고, 손가락을 블록 구멍에 넣으려는 등의 탐색활동을 하였다.

현준이는 코코블록 바구니에서 빨간색 긴 코코블록을 하나 꺼내 불룩한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블록의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손바닥에 눌러지는 자극을 주었으며, 얼굴을 찡긋거리며 이와 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하였다. 다시 블록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블록 뒷부분의 구멍이 뚫린 부분에 손가락을 한 개를 넣어보고, 잠시 후 손가락두 개를 넣어보고,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구멍이 작아 실패한다. 다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는데, 뒤집어서 불룩한 부분이 바닥에 닿게 내려놓자, 블록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옆으로 기운다. (2006. 4. 4. 관찰)

강진아(1998, 재인용)에 의하면 영아의 물체 탐색 행동은 입으로 빨거나 만지는 것과 같이 무분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체에 손을 뻗치거나, 쥐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등 더욱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익숙하지 않은 대상일 때 먼저 그것을 탐색하여 점차 익숙해지고 그 환경이 편안해짐에 따라 놀이를 하게 된다.

(2) 블록의 물리적인 변화 탐색하기

영아들은 블록 놀이감을 신체를 이용해 빨고, 비비고, 누르는 등의 탐색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영아들에게는 어떠한 힘이 가해졌을 때 블록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 만한 재미를 안겨주었으며, 탐색활동 중에 단단하지 않은 블록을 손과 발로 눌러보고 그 모양이 변화하는 것에 영아들은 집중하였으며, 즐거워하였다. 블록이 무너지는 모습 또한 영아에게는 흥미를 끌만한 재미를 안겨주었으

며, 그 허물어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블록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소리 또한 영아의 관심을 끌었다. 블록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는 영아에게 각 사물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다음은 진이가(15개월) 바닥에 놓여진 스펀지 블록을 딱딱한 종이 벽돌 블록으로 힘을 가해 누르면서, 블록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는 장면이다.



<사진 7>



<사진 8>

규현이는 블록영역 중 벽면에 정리되어있는 스펀지 블록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쌓여있는 블록을 허물어 버렸다. 진이가 규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스펀지 블록을 하나 들고 카페트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종이벽돌 블록을 가져와 스펀지 블록위에 세로로 올려놓고 양손으로 블록을 잡고 서 있다. (사진 7) 조금 있다가 세워놓은 블록에 몸을 기대고 양손으로 블록을 눌러보며, (사진 8) 바닥에 깔려있는 스펀지 블록이 무게에 의해 안으로 들어가며 그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며, 한참을 응시한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블록 누르기 활동을 반복한다. (2006. 3. 29. 관찰)

다음은 현준이가 우레탄 블록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현준이는 우레탄 블록을 가지고 손으로 눌러보고, 손톱을 이용해 긁어 보며, 블록의 모양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으며, 방울 장갑 안에 블록을 넣어보려고 시도하며 물체의 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영아의 놀이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 9>

현준이는 음률영역에 있는 손가락에 방울을 각각 매단 장갑을 흔들며, 웃는다. 오른손에 장갑 1개를 들고 쌓기 영역으로 와서는 장갑을 카페트에 내려놓고, 빨간색 우레탄 블록을 오른손으로 집는다. 블록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다가 다시 손톱을 이용해 블록을 긁어보는 행동을 한 후, (사진 9 손바닥을 이용 하여 블록을 비벼본다. 우레탄 블록을 손톱으로 긁어 자국을 만들어내자, 계속해서 긁어내며 자국을 만들었다. 잠시후, 방울 장갑을 들고 장갑 입구부분을 벌려 우레탄 블록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시도한다. 장갑의 입구가 좁아서 우레탄 블록 넣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사에게 가져와 블록을 내려놓는다. 교사가 장갑의 입구를 벌려 우레탄 블록을 반쯤 넣어주자, 블록을 흔들며 방울 소리를 낸다.(2006. 4. 7. 관찰)

우연적이고 목적이 없는 행동에서 영아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영아는 탐색활동에 의도성을 더하여 반복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탐색가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아들은 블록이 무너지는 모습과 무너지면서 생겨나는 소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10>

현준이는 종이벽돌블록을 왼손으로 잡아들고 카페트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하더니, 카페트에 블록을 내려놓고, 그 위에 다른 종이벽돌 블록을 하나 더 가져와 올린다. 다음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블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다. 교사는 현준이 옆으로 다가가 그 옆에서 종이벽돌 블록을 현준이와 같이 두 개까지 쌓는다. 그리고 3번째 종이벽돌 블록을 가져와 그 위에 쌓아 보고는 손으로 '툑' 치며 허물고, "와-르르"라고 입으로 소리를 낸다.

현준이는 "이히히"하며 즐거워하고, 교사가 허문 구성물을 응시한다.

잠시 후, 교사가 구성하였던 종이벽돌 블록을 다시 차례로 세 개까지 쌓더니, 양손으로 밀며 의도적으로 무너뜨린다.(사진 10)무너질 때의 구성물의 모양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깜빡이고 "까-하" 라고 하며 크게 웃는다. (2006. 4. 20. 관찰)

다음은 재우가(14개월) 쌓여있는 블록을 허물며 활동하는 장면이다. 재우는 혼자서 블록을 높게 쌓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종이벽돌 블록을 한 두 개 쌓는 도중 허물어지자, 이내 중단하고 또래의 블록 쌓기 활동을 관찰한다. 블록영역에서의 또래 쌓기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옆으로 다가가서 손으로 밀어서 허물어 버린다. 또래가 쌓은 구성물의 높이가 높아 무너지는 모습이 이전보다 크고, 허물어지는 소리도 크자, 즐거워하며 다른 곳에서 또래가 만든 쌓기 구성물을 계속해서 허무는 활동을 즐겼다.



<사진 11>

재우는 카페트에 서서 옆에서 종이벽돌블록 쌓기 활동을 하는 지영이를 바라본다. 지영이가 종이벽돌 블록을 4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올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블록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재우는 구성물에 다가 손으로 밀어낸다.(사진 11) 블록이 무너지면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자 '으히히'하고 웃으며 손뼉을 친다. 잠시 후, 옆에서 재현이가 만든 블록 쌓기 구성물도 양손으로 밀며 무너지는 소리가 나자, 교사를 쳐다보며 '우히히'하고 웃는다.
(2006. 4. 4. 관찰)

다음은 규현이가 우연히 코코블록을 끼우다가 부딪쳐서 소리를 내고, 코

코블록의 소리를 탐색하는 장면이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소리는 영아에게 흥미를 주었고, 영아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냈다.



<사진 12>

규현이는 지영이가 코코블록을 이용해 구성물을 만드는 것을 한참동안 응시하더니, 지영이가 구성물을 만들기 위해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은 코코블록 두 개를 집어 들고 옆에 앉는다. 이어서 코코블록 두 개를 끼우려고 하는데,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을 맞춰 끼우지 않고, 오목한 뒷부분 끼리 끼우려다가 '딱딱'하는 부딪치는 소리를 만들어낸다.(사진 12) 규현이는 다시 블록을 부딪쳐 보고, 조금 후에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소리를 크게 내보았다. (2006. 4. 10. 관찰)

블록놀이에서 영아들은 소리만들기 활동에 집중하였다. 영아들의 이러한 소리만들기 활동은 비의도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구성물의 쌓기 실패로 인해 블록이 허물어지며 나는 소리나, 블록을 던졌을 때 또는 블록끼리 부딪치며 나는 소리 등의 소리를 발견해내고, 이후에는 점차 의도적으로 블록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반복하며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은 수민이(15개월)가 코코블록 바구니 속에서 코코블록을 꺼내다가,

바구니 속의 코코블록이 서로 부딪치며 나는 소리를 듣고, 반복하여 소리나게 하는 장면이다. 처음에는 코코블록을 꺼내려다 소리를 만들어냈지만, 우연히 블록끼리 부딪쳐 나는 소리를 듣고, 점점 더 크게 부딪쳐보고, 양손을 모두 넣어 블록들을 섞으며 크게 부딪쳐 나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등의 도적인 소리탐색을 하였다. 수민이는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여 블록을 이용해 여러 가지 소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13>



<사진 14>

수민이는 레고 블록바구니에서 왼손으로 레고인형을 하나 들고, 오른손으로 레고를 집다가 옆에 있는 다른 레고 블록과 부딪치며 '따-닥'하는 소리가 나자 '야-야'하고 소리 내며 웃는다. (사진 13)이번에는 레고를 손에 들고 바구니 속 레고들과 의도적으로 부딪치면서 '탁탁' 소리를 낸다. 조금 더 큰 소리가 나자, 더 환하게 웃으며 '끄흐흐'하고 소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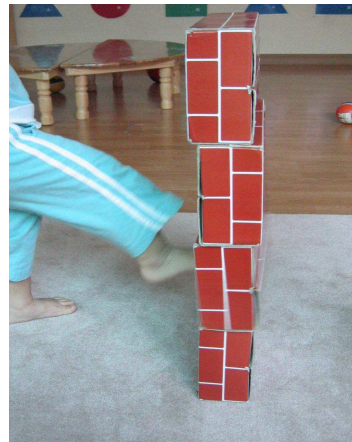
잠시 후, 집어든 레고블록을 바구니에 내려놓고, 양손을 바구니에 넣은 후 상하좌우로 마구 흔든다.(사진 14) 레고들끼리 부딪치며 요란한 소리가 나자, "까르르" 웃으며 좋아한다. (2006. 4. 5. 관찰)

태훈이는(17개월) 블록의 무너지는 모습과, 무너지질 때의 소리를 매우 흥

미로워 하였으며, 또래의 구성물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 자신이 직접 구성하고, 곧바로 무너뜨리는 활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 기쁨도 영아들에게는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놀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수는 즐거움도 영아들에게는 중요한 블록놀이의 동기가 되었다. 영아들은 블록을 부수는 과정에서의 청각적 효과를 즐기고 있었다. 다음은 태훈이가 종이벽돌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올리고 곧바로 발로 블록을 차서 ‘톡톡’ 거리는 소리를 즐기는 장면이다.



<사진 15>



<사진 16>

태훈이는 종이벽돌 블록을 3개 쌓아서 올린 후, 오른발로 블록의 아래 부분을 차서 ‘톡톡’ 소리 내며 미소 짓는다.

잠시 후, 다시 오른발로 블록의 아래 부분을 차다가 블록이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며 윗부분 2개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한다.(사진 15) 다시 블록을 쌓아서 발로 차며 소리를 내는 활동을 몇 번씩 반복한다.

무너진 블록을 다시 수직으로 쌓고, 그 위에 종이벽돌 블록을 수직으로 하나 더 올린다. 그리고는 다시 오른발로 블록의 아래 부분을 차서 블록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한다.(사진 16) (2006. 4. 10. 관찰)

2)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은 영아가 블록을 욕구충족의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였다. 월령이 어린 영아들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걷기를 통한 이동능력이 발달하고, 이것은 영아들의 탐색활동을 급격하게 확장시킨다. 또한 19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이동능력(locomotion)이 안정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진다. 영아들의 이러한 능숙한 신체조절 능력의 발달은 영아의 움직임의 욕구와 비례하여 교실 내에서 대 근육을 사용하여 보다 큰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 또한 신체의 힘을 조절하며 활동하는 영아들은 놀이실 전체를 이용하여 블록을 끌고, 블록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신체적 기술 및 조작력을 발달시키고,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또한 쌓고-부수는 행동에 제약이 없는 블록 활동의 특성상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리고, 던지고, 부수는 행동으로 정서이완의 경험도 제공받았다. 영아들은 이처럼 블록영역이라는 안전지대(safe zone) 내에서의 욕구충족을 하였다.

(1) 신체적 욕구충족하기

영아들은 블록놀이 영역 이외의 공간에서도 블록을 자유롭게 탐색하였다. 이것은 영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시기의 영아는 대 근육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큰 활동을 하려고 하고, 보다 넓은 공간에서의 활동을 원한다. 영아들은 블록을 밀고, 굴리고 하는 등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신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사진 17>



<사진 18>

용찬이는(17개월) 블록영역에서 사각형의 빨간색 스펀지 블록 하나를 들고 카페트에 내려놓는다. 잠시 후 같은 모양의 주황색 스펀지 블록을 하나 더 들고 오더니 빨간색 스펀지 블록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밀어본다. 카페트에서 균형을 잃고 스펀지 블록이 무너지자 스펀지 블록을 양손에 하나씩 잡아들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시 손으로 블록을 밀었을 때 (사진 17) 바닥과 스펀지 블록의 마찰력이 적어 스펀지 블록이 잘 미끄러지자, 용찬이는 무릎을 꿇어 동물들이 기어 다니는 모습처럼 하고, 양손을 주-욱 뺀어 블록을 밀고 다닌다. (사진 18) "흐히히" 하고 웃으며 교실 전체를 블록을 밀며 기어 다닌다. (2006. 4. 3. 관찰)

관찰에서 나타난 영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놀이실에서 영아는 수시로 교구장과 낮은 창문 틀, 낮은 책상 위를 올라가며 올라가기 욕구를 충족하려 했고, 매우 즐거워하는 표정을 하였다. 하지만, 영아의 안전을 위해서 영아의 이러한 올라가기 행동을 간과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영아의 이러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아가 교사의 제재 없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욕구를 충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록영역에서 만큼은 가능했다. 영아는 블록영역에서 정리되어진 블록을 밟고 올라

가거나, 블록 위에 올라가 앉는 등 블록을 안전지대로 삼아 놀이하였다.

다음은 동완이가(14개월) 정리되어진 스펀지 블록위에 올라가고 앉는 장면이다.



<사진 19>

동완이는 스펀지 블록이 정리되어있는 벽면으로 다가가서, 2개의 정사각형 스펀지 블록이 쌓여있는 곳에 올라가 앉았다. 스펀지 블록이 미끄러지며 내려앉자,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쳐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경사진 스펀지 블록 위에 올라가 앉는다. (사진 19) (2006. 4. 4. 관찰)

다음은 유선이가(19개월) 블록위에 올라가서 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블록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고 서기 위해 신체를 조절해가며 시도했다.



<사진 20>

유선이는 종이벽돌 갈색 종이벽돌 블록을 꺼내어 카페트에 내려놓고, 한발로 블록을 밀며 블록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으려고 시도한다. 블록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고 왼쪽 발을 카페트에서 떼자 바닥에 '쿵'하고 넘어진다. 잠시 후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오른쪽 발을 올리고 바로 왼발도 벽돌위에 올려놓고(사진 20) 블록위에 선다. (2006. 4. 4. 관찰)



<사진 21>



<사진 22>

잠시 후, 유선이는 한발을 떼고, 블록위에 한발로 서기 위한 시도를 한다.

(사진 21) 블록에서 왼발을 떼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려고 하며 몸을 비튼다. 상체로 균형을 잡고, 얼굴에 힘을 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유선은 다시 양발로 블록위에 선다. 잠시후, 천천히 오른발을 떼고 (사진 22) 블록위에 한발로 서기 위한 재 시도를 한다. 조금 전보다 균형 잡힌 자세로 블록에 서있을 수 있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몇 초간 왼발로 블록 위에 서 있다. (2006. 4. 4. 관찰)

(2) 정서적 욕구충족하기

영아들은 블록 활동에서 구성한 블록을 부수고, 블록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활동을 즐겼다. 영아들에게는 블록이 허물어질 때 나는 소리와 모습이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정서이완의 이점을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구성물을 발로 차며, 놀이하자는 장면이다. 영아들이 블록을 쌓는 목적에는 블록 쌓기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놀이에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만, 단순히 쌓고 부수기 위한 파괴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도 볼 수 있었다.



<사진 23>



<사진 24>

수민이와(15개월) 원기(14개월) 블록영역에서 각각 종이벽돌 블록과 스폰지 블록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기 활동을 한다. 수민이가 빨간색 종이벽

돌 블록을 세로로 2개까지 쌓아 올렸을 때, 곧바로 발로 구성물의 윗 부분을 '뽕'하고 차서 블록을 무너뜨린다. (사진 23) 이것을 지켜보던 원기는 자신이 쌓은 스펀지 블록 2개를 오른발로 '뽕'차고, 바닥에 떨어진 스펀지 블록을 수민이와 같이 찬다.(사진 24) (2006. 3. 30. 관찰)

다음은 영아가 블록구성물을 손으로 치거나, 밀어서 무너뜨리는 장면이다. 영아는 블록이 무너지면서 나는 소리를 즐기기도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무너뜨리는 즐거움에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 하였다.



<사진 25>

수민이는(15개월) 빨간색 종이벽돌 블록을 한 개씩 가지고와서 카페트에 내려놓고, 수직으로 2개를 쌓는다. 카페트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쌓은 블록을 '툭' 건드려서 무너뜨리고(사진 25) 아-우"하며 크게 웃는다. 무너뜨린 종이벽돌 블록을 가로로 다시 2개까지 쌓아 올리고, 일어나서 양손으로 힘껏 밀어블록이 조금 전보다 멀리 떨어지게 무너뜨린다. (2006. 4. 4. 관찰)

3) 같은 활동 반복하기 (의도적인 탐색)

블록놀이에서 영아는 자유로운 탐색단계를 거쳐, 보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블록놀이 활동에서 빈번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아들이 한 가지 활동을 같은 자리에서 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영아들은 주로 블록을 부딪쳐 보거나, 블록을 높이 쌓고, 허물고, 다시 쌓고 허무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일정한 패턴이 있거나 의미 없는 나열을 하며 블록을 한 줄과 두 줄로 나열하는 수평으로 구성물 만들기 활동을 반복하였다.

(1) 쌓기 작업(work)하기

영아들은 여러 종류의 블록을 이용해 높이 쌓기 활동을 즐긴다. 여기서의 쌓기 활동은 확장된 놀이 형태가 아닌, 단순한 쌓기에 그친다. 관찰기간동안 영아들은 이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수고로움을 몇 번씩,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영아들의 쌓기 활동이 마치 ‘작업(work)’ 처럼 이해되어졌다. 영아들이 블록 쌓기 활동을 반복한다고 하여 블록 구성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거나 복합적인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의 구성물이 균형을 잃거나, 실수로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반복하며 이후의 쌓기 활동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 받고, 이로 인해 영아는 구조적이고, 단단한 쌓기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영아의 반복되어지는 블록 쌓기 활동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하나의 놀이로 이해되어졌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태훈이가(17개월) 블록을 높이 쌓고 블록이 허물어지면 다시 쌓는 활동을 반복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26>



<사진 27>

태훈이는 블록영역으로 가서 하늘색 스펀지 블록하나를 꺼내 카페트에 내려놓는다. 다시 노란색 종이벽돌 블록을 하나 꺼내 와서 스펀지 블록위에 올려놓고,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 종이벽돌 블록, 갈색 종이벽돌 등 종이벽돌 블록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다.(사진 26) 10개 쌓을 때 블록의 높이가 키보다 높아지자, 발 뒷꿈치를 들고 양팔을 올려 종이벽돌 블록을 하나 쌓으려다가 (사진 27)쌓아 놓은 블록을 팔꿈치로 건드려 쌓아놓은 블록이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면서 앞으로 쓰러진다.

블록이 허물어지면서 '두두둑'하는 소리가 나자, "아우-"하고 소리 내며, 눈을 크게 뜨고 허물어진 블록을 잠시 응시한다. (2006. 4. 11. 관찰)

잠시 후, 무너진 종이벽돌블록을 하나씩 집어 들고, 바로 옆 카페트에 다시 쌓으려고 한다. 블록을 가로로 내려놓았다가, 다시 세로로 세워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양손에 블록 한 개씩을 들고 가로방향, 세로방향으로 내려놓아 보더니 블록을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블록을 세로로 쌓아 올린다.

스펀지 블록을 카페트에 놓고, 그 위에 종이벽돌 블록을 3개까지 쌓은 후, 4개를 쌓으려고 바닥에 떨어진 블록을 집는 순간 엉덩이로 쌓아놓은 블록을 건드려서 블록이 무너진다.

블록이 무너지면서 서로 부딪치고, 정은이가 집어든 블록을 '톡톡'치고, 바닥에

떨어지며 '투두둑' 소리를 내자, '휴-'하고 한숨 쉬며, 블록을 발로 찬다.
발로 찬 블록을 집어 들고 바닥에 가로로 내려놓고, 그 위에 종이벽돌 하나를
세로로 쌓아 올린다. (2006. 4. 11. 관찰)

영아들 중 월령이 낮은 영아나 블록경험이 적은 영아는 처음에는 블록을 불안정한 형태로 쌓아, 무너지고 균형이 없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점차 안정적인 형태의 높이 쌓기 구성물이 나타났다. 영아들은 블록을 쌓는 활동을 반복하여 연습하면서 점차적으로 블록을 높이, 그리고 균형 잡힌 구조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갔다.

다음은 현준이가(12개월) 종이벽돌 블록으로 쌓기 활동을 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블록이 흔들거리자, 손으로 붙잡고 있거나, 누르는 행동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놓아 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쌓기 활동을 접근 해 본 후, 스스로 균형 잡힌 구조물의 방향을 터득하여 높이 쌓기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활동을 하며 쌓은 블록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혼잣말을 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연습하면서 블록을 높이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사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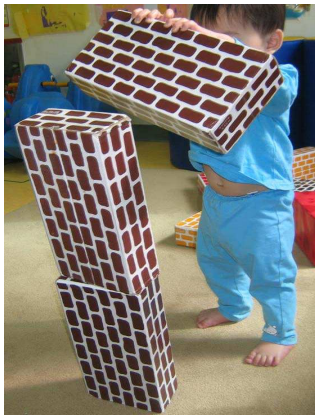


<사진 29>



<사진 30>

현준이는 종이벽돌 블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갈색 종이벽돌 블록을 양손으로 꺼낸 후, 카페트에 가로로 놓고, (사진 28) 갈색 종이벽돌 블록 하나를 더 가져와 그 위에 세로로 놓아 수직으로 쌓는다.(사진 29) 블록이 미끄러지며 쓰러지자, 블록을 오른손으로 잡고 고정해서 세우려고 한다. 블록의 가로와 세로의 밑면이 서로 굴곡이 있어서 균형 잡힌 구조물로 쌓기가 되지 않자, 다양한 방법으로 쌓기를 시도한다.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종이벽돌 블록을 세로로 놓고 수직으로 쌓아 올렸을 때 2개까지 쌓아 올려지자 일어나서 종이벽돌 1개를 더 쌓으려고 한다. (사진 31) 세로로 놓여진 블

록이 무게중심을 잃고 무너지자, '으-응'하고 소리 내며, 얼굴을 찡그리고 카페트에 앉는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벽돌을 하나씩 집어 들고 다시 일어나서는 빨간색 종이벽돌 블록을 하나 가져와 다시 쌓기를 한다. 종이벽돌 블록을 세로로 쌓고, 그 위에 다시 세로로 쌓은 후 무너지지 않게 손으로 누르고 있다.(사진 32) ...중략... 계속해서 블록이 무너지자, 같은 방법으로 블록 쌓기 활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블록의 균형을 잡아가며 모양을 수정하고 쌓아 올린다.(사진 33) (2006. 4. 12. 관찰)

(2) 블록 나열하기

영아들의 블록 활동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은 블록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하는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영아들은 블록을 한 줄 또는 두 줄이 되게 수평으로 나열하거나, 여러 종류의 블록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블록의 연결방법을 반복하여 탐구한 후 블록으로 구성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물의 특징을 충분히 묘사하지는 못했다. 이는 Johnson(1962)이 제시한 블록을 통한 구성놀이 발달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평으로 줄 세우기에 열중하며, 패턴 반복하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논의 및 결론에서 언급하겠지만, 만 1세 영아반에서의 블록놀이는 Johnson이 제시한 2단계에 해당하는 2,3세의 연령보다 어린 연령인 18개월에서 24개월의 영아들에게서도 블록을 수직과 수평으로 나열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영아들은 블록 활동에서 여러 종류의 블록을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열하거나 끼워보는 활동을 반복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일정한 구성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중의 한 단계가 아니라 블록을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재현이가(21개월) 종이벽돌 블록을 수평으로 나열하는 장면이다.

재현이는 같은 색의 종이벽돌 블록을 사용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길게 연결하였다. 나열한 블록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손으로 ‘톡톡’ 치면서 모양을 수정하며 활동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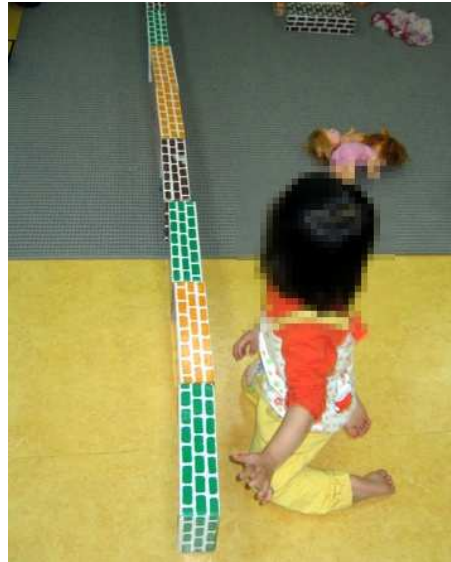


<사진 34>

재현이는 오른 팔에 강아지 인형을 끼고, 왼손으로 노란색 종이벽돌 블록을 꺼내서 카페트에 내려놓는다. 옆에서 지영이과 원기가 블록쌓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으-응"소리를 내며 팔로 재현이를 밀자, 재현이는 바닥에 내려놓은 벽돌블록을 들고, 카페트 옆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시 노란색 종이벽돌 블록 하나를 들고 와 그 옆에 연결하여 내려놓는다. 곧이어 다시 종이벽돌 블록 1개를 더 가져와 나란히 나열한다. 나열된 블록의 모양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자, 블록을 응시하더니, 왼손으로 블록을 '톡톡'치면서 반듯하게 놓는다. (사진 34) 벽돌 블록 3개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자, '씨-익' 웃으며 교사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팔에 끼고 있던 강아지 인형을 안고, 다른 영역으로 간다. (2006. 4. 21. 관찰)

다음은 정은이(19개월)가 종이벽돌 블록을 한 줄로 길게 나열하는 모습이다. 정은이는 블록 장에서 종이벽돌 블록을 계속해서 하나씩 꺼내서 블록과 블록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게 붙이면서 길게 12개까지 나열했다. 블록

이 조금 삐뚤어지게 놓여 지면, 모양을 약간 틀어서 다시 돌려 잡은 후 나열한 후, 그대로 놓아둔 채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사진 35>

정은이는 종이 벽돌 블록 장에서 블록의 색깔을 고르지 않고,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꺼낸다. 꺼내온 종이벽돌 블록을 카페트 바닥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길게 나열한다. 오른손으로 종이벽돌 블록을 1개씩 꺼내서 나열하고 블록과 블록의 사이가 떨어지면 손바닥으로 블록을 살짝 밀면서 이어 붙인다. 블록 모양이 삐뚤어지면 블록의 방향을 돌려보면서 평평한 면이 서로 맞붙게 하여 모양을 바로 잡아, 이렇게 블록을 12개 길게 한 줄로 나열한다. (사진 35) (2006. 4. 17. 관찰)

영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블록 모양을 탐색하고 다양하게 끼우거나 쌓아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하고 실패하고 재시도 하였다. 코코블록을 수직으로 끼우거나, 레고 자동차를 고리를 이용해 나란히 연결하기 위한 시도, 코코블록을 수평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블록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영아들의 구성물은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영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블록 연결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탐구하면서 스스로 점차 터득해 나갔다.

아래의 사례들은 영아들이 블록을 연결하면서 실패와 시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성공경험을 보여준다.

다음은 유선이가(19개월) 코코블록을 수직으로 길게 끼워서 쌓는 모습이다. 유선이는 코코블록을 양손에 잡고 서로 끼워나가는 방법으로 블록을 연결하다가 자신이 지탱할 수 있는 길이를 벗어나자, 블록을 끼우는데 어려움을 느껴 카페트 바닥에 내려놓고 끼워서 쌓아가는 방법을 찾아내 활동하였다.



<사진 36>

유선이는 코코블록 바구니에 손을 넣고 이것저것 고르다가, 초록색 코코블록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시 바구니에 양손을 넣고 코코블록 3개를 집어 든 후 바닥에 내려놓고, 앉는다. 그리고는 바닥에 있는 코코블록을 하나

씩 끼워서 수직으로 쌓는다. 손가락과 얼굴에 힘을 주며 '꼭-' 눌러 블록을 4개까지 끼운 후, 다시 코코블록 바구니에서 블록 5개를 꺼내서 쌓은 블록위에 하나씩 끼운다. 블록을 7개까지 끼운 후(사진 36) 카페트에 앉아서 구성물을 한참동안 응시한다.(2006. 4. 20. 관찰)

다음은 재현이가(21개월) 코코블록을 수직으로 길게 끼워서 연결하는 모습이다. 끼우기 블록은 서로가 잘 맞춰줘서 균형 잡힌 형태로 쌓기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맞추어 끼우지 않으면 블록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불안정한 형태로 바뀐다. 재현이는 코코블록을 끼우며 쌓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스스로 반복적인 탐구과정을 거쳐 블록을 14개까지 높이 끼울 수 있었다.



<사진 37>

재현이는 카페트에 앉아서 왼손으로 레고 바구니에서 파란색 코코블록을 하나 꺼내 든다. 오른손으로 노란색 코코블록을 들고 왼손에 들고 있는 코코블록에 맞추어 끼운다. 코코블록의 사각형의 모양을 맞추어 끼우지는 않고, 적당히 맞춰져서 끼워지면 다시 한 개를 꺼내서 이어서 끼워 맞춘다. 끼워진 코

코 블록은 왼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코코블록이 8개까지 끼워지자 지탱하는 힘이 약하여 흔들거린다. (사진 37) (2006. 4. 20. 관찰)



<사진 38>



<사진 39>

재현이는 빠진 코코블록을 들고 카페트에 앉아서 다시 연결하기 시작한다. 블록이 6개까지 연결되었을 때 재현이는 자기의 다리 위에 끼워진 코코블록을 내려놓고, 코코블록 3 개를 더 끼워 9개까지 연결한다. (사진 38) 끼워진 블록의 양 끝을 들고 위로 올리며, '야 -'하며 좋아한다. (사진 39) (2006. 4. 20. 관찰)

다음은 재현이가 블록 연결하기에서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재현이는 블록을 손에 들고서 끼울 때와, 다리에 내려놓고 끼울 때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보다 안전한 블록 연결방법을 위해 블록장 위에 코코블록을 올려놓고 쌓기 활동을 하였다.



<사진 40>

재현이가 조금 전 활동에서 연결한 9개의 코코블록의 끝을 양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종이벽돌 블록장 위에 올려놓는다. (사진 40) 그리고는 코코블록 바구니에서 블록을 양손에 1개씩 잡아서 가지고와 블록장 위에 올려놓은 연결된 코코블록에 이어서 끼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블록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종이벽돌 블록장의 끝까지 다 닿았을 때 재현이는 블록 끼우기를 멈췄다. (2006. 4. 20. 관찰)

위의 관찰사례는, 초기 영아기 즉 감각 운동기에 속하는 영아들이 단순한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시기이며, 이러한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연습놀이의 단계를 통해 영아들은 구성물을 조작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구성물을 만들 수 있는 발달 단계로 향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상징적으로 표상하기

영아들은 블록놀이 활동에서 블록의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 탐색할 뿐만 아니라 구성된 블록 구조물에 이름을 붙이고 구성물을 계속 재구성하면서

이야기 하고 완성한 구성물을 사용하여 상상놀이로 연결 하였다. 영아들의 구성물은 사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영아들의 구성물은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물리적인 환경제공 등의 개입으로 인해 보다 확장된 형태로 발전하였고, 상상놀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

(1) 구성물에 이름붙이기

영아들은 블록을 연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면서 블록을 끼우거나 연결해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구성물을 만들었다. 또한 구성물을 만든 후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그 형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구성물에 이름을 붙일 때도 있었으며, 구성물과 전혀 닮지 않은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영아들이 아직까지 사물의 특징을 상징할 만큼의 구성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블록을 쌓거나 끼우는 것으로 구성놀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는 것을 표상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이와 같은 구성놀이의 모습은 Johnson(1962)이 제시한 블록을 통한 구성놀이 발달단계의 6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전에 학습된 쌓기 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완성된 구성물을 만들뿐만 아니라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19개월 이후의 영아들이 이전에 학습한 블록의 연결방법을 사용해 구성물을 만들고 자신의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음은 재현이가(21개월) 블록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구성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다. 재현이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블록연결방법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블록이 허물어지지 않게 딱딱 눌러서 끼운 후 교사의 구성물의 이름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만든 구성물을 보면서 구성물과 전혀 닮지 않은 ‘사자’ 라는 이름을 붙였고 기차 모양의 구성물을 보고는 교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을 말하였다. 재현이는 자신이 만든 구성물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교사의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41>

재현이는 코코블록을 3개 끼운 후 교사가 "무엇을 만들고 있니?"하고 물어보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따자"라고 한다. 재현이는 연결한 코코블록을 다시 빼 후 여러 모양의 블록을 수직으로 끼워 큰 모양(사진 41)으로 만든 후 교사가 "이게 뭐야?"라고 묻자 자신이 만든 구성물을 들어 보이면서 "짜짜짜" 라고 말하면서 미소 짓는다. (2006. 4. 27. 관찰)

다음은 지영이가(24개월) 스스로 구성물의 이름을 붙이고 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영이는 구성물을 만든 후 혼자 구성물의 모양과 유사한 이름을 붙이고 말하였다. 비록 처음에 구성한 집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지만 교사와 만든 집 모양의 구성물의 블록을 뺏다가 다시 끼우기를 반복한 후, 스스로 모양을 재구성하고, ‘집’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영이는 기초적인 블록 연결방법을 사용해 단순한 구성물을 만들었지만 블록구성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사물을 미리 생각한 후 알맞은 블록모양을

선택해서 만든 후 이름을 붙였다. 즉 지영이는 블록구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생각을 구성물을 통해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42>

지영이는 코코블록을 위로 끼우며 긴 모양으로 블록을 만들려 하지만 잘 끼워지지 않자 교사에게 내밀면서 "안돼"라고 말한다. 교사는 구멍에 맞추어서 끼우는 방법을 지영이에게 보여주면서 긴 코코블록 위에 작은 코코블록을 연결하여 끼운다. 지영이는 교사 옆에 서서 교사가 끼우는 것을 주시하여 관찰한다. 지영이는 교사가 끼워 준 것을 받고는 "까아"하며 좋아하고 다시 긴 코코블록과 작은 코코블록을 연결해서 끼운다. 지영이는 손에 들고 있던 구성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크기가 같은 코코블록을 찾아서 두 손에 힘을 주고 눌러서 4개까지 끼운 후 "집" 이라고 이야기하고 긴 코코블록 1개를 더 겹쳐서 끼운 후 들고 다닌다. (사진 42) (2006. 4. 28. 관찰)

(2) 블록을 이용해 상상놀이하기

영아가 2세경이 되면 표상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상상이나 상징을 사용한 놀이를 많이 하게 된다.(이지향, 2003) 21개월에서 24개월의 영아들도 블

록활동에서 자신이 만든 구성물을 사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역할들을 가작화하는 상상놀이를 하였다.

다음은 재현이가(21개월) 자신이 만든 구성물로 상상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재현이는 “치치포포” 라며 큰 소리로 효과음을 내고 자동차모양의 구성물을 밀면서 놀이를 한다. 자동차를 한참 동안 밀면서 놀다가 갑자기 미는 것을 멈추고 자동차모양의 블록을 빼내어 그 위에 레고 블록을 여러개 더 끼운 후 “집” 이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처럼 재현이는 자신의 구성물을 여러 가지 사물로 상징하여 놀이를 진행했다.



<사진 43>



<사진 44>

재현이는 바퀴 달린 레고 블록에 직육면체모양을 3개 더 끼워 자동차 모양의 구성물을 완성했다. (사진 43) 완성된 구성물을 잡고 계속해서 바닥에 밀면서 “치치포포 치치포포” 효과음을 큰소리로 낸다. 그런 후 구성물에서 자동차 레고블록을 빼내고, 그 위에 크기가 같은 레고 블록다시 높게 끼운 후, 바닥에 내려놓고 각 직사각형 레고 블록으로 맨 위를 덮어 끼운다. (사진 44) 그리고 “집” 이라고 말하면서 교사에게 준다. 교사가 “여기 재현이네 집이야?” 라고 말하자, 재현이는 “응, 아가 자”라고 말하며 레고 사람모형을 가지러 가며 활짝 웃는다. (2006. 5. 3. 관찰)

다음은 재현이가(21개월) 블록을 단순히 나열하는 활동에서 또래-교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개입을 통해 놀이가 보다 확장된 형태로 발전하는 장면이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가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 안에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고, 영아는 교사가 제공한 단서를 통하여 준비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놀이를 발달시켜 가고 있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구성물을 만들고, 상징놀이를 발전할 수 있었다.



<사진 45>



<사진 46>

재현(21개월)이는 종이벽돌 블록장에서 벽돌블록을 두개 가지고 와서 카페트에 수평으로 나열하였다. 곧바로 종이벽돌 블록 몇 개를 더 가지고 와서 길게 연결 하였다. 블록의 모양이 삐뚤어져 있자 잠시 응시하더니, 모양을 바로 맞춰서 수정하다가 직각으로 꺾어서 ㄱ 자 모양으로 만든다. 재현이의 활동을 쳐다보고 있던 유선이가(19개월) 종이 벽돌블록을 한개 가져와 ㄱ 자 모양이 ㄷ 자 모양이 되도록 도왔다. (사진 45) 잠시 후 재현이가 이어서 벽돌블록을 연결하여 달린 모양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교사가 블록이 완전히 달린 모양이 되도록 보완하면서 "재현이네 집이네" 하고 말한다. 재현이가 좋아하며 웃고, 교사는 '재현이네 집에 들어가도 되요?'라고 말한다. 재현이는 싫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으며 바로 자기가 구성한 구성물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다. 그리고 나서 유선이가 구성물 안으로 들어가 앉자, 싫은 얼굴을 하며 손으로 밀어내지만, 유선이가 움직이지 않자 함께 앉아있다. 잠시후, 태훈이도

구성물 안에 들어가 앉는다. (사진 46) (2006. 04. 12. 관찰)

위의 사례는 Johnson이 제시한 블록을 통한 구성놀이 발달단계 중 4단계인 ‘울타리 쌓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영아들은 우연한 기회에서의 시작이었지만 블록을 나열해서 폐쇄 공간 형태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즉 영아들은 블록을 끝에서 끝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열하거나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둘러싸기 위해서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블록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의 개입으로 블록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자신의 구성물에 의미를 더하여 “집”이라는 구성물을 만들어 내어 상징놀이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다.

다음은 지영이가(24개월) 블록을 이용해 상상놀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영이는 블록으로 구성물을 만들기 보다는 블록영역과 소꿉영역을 연계하여 블록과 소꿉을 활용하여 음식을 자르고 먹여주고 먹는 흉내를 내는 상상놀이에 더욱 몰두해 있다. 또한 블록으로 구성놀이를 할 때는 혼자놀이를 하였지만 상상놀이를 할 때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다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성인을 끌어들여 같이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47>

지영이는 빨간색 코코블록을 두 개 들고 맞춰서 끼우더니 "냠냠"하며 먹는 시

놓을 한다. 그리고는 코코블록을 들고 소꿉영역으로 가서 파란색 접시에 블록을 올려놓고, 모형 칼을 가지고 와서 맞춰 끼운 코코블록을 "탁탁탁" 소리를 내며 자른다. 교사가 다가가서 "아- 배고파, 선생님도 맛있는 거 줘"라고 하자, 빨간색 코코블록 하나를 들어서 교사에게 준다. 교사가 "냠냠"하며 먹는 시늉을 하고, "맛있다- 아 배부르다" 라고 하며 배를 툭툭 치자, "까르르" 웃는다. 다시 빨간 코코블록 하나를 교사 입에 넣어주려고 하자, 교사는 입에 넣는 시늉을 하며 "맛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종이벽돌 블록을 가져와서 다리 쌓기 형태의 식탁을 만들자, 곧바로 빨간 종이벽돌을 가져와 비슷한 형태로 쌓아서 식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접시를 놓고, 블록을 올려놓는다. 소꿉영역에서 컵과, 딸기 스펀지 모형소품과 접시 몇 개를 가져와서 식탁구성물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앉는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재현이에게 컵을 하나 입에 대준다. 지나가던 용찬이가 손을 내밀자, 딸기 스펀지 모양소품을 주면서 입을 찹찹 거린다. (사진 47) 그리고 딸기 스펀지를 먹여주려고 입에 가까이 대주고, 교사에게도 블록을 계속해서 주며 먹여주는 놀이를 계속한다. (2006. 4. 26. 관찰)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놀이 특성인 영아들이 블록놀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블록 놀이감의 종류와 놀이감의 사용 개수 및 놀이 지속시간을 살펴보고, 영아들의 놀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블록놀이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1) 영아의 블록놀이에서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블록놀이에서 영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블록놀이감은 종이벽돌 블록과 스폰지 블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령집단별로 선호하는 블록 놀이감은 월령이 어린 영아들이 크기가 조금 더 큰 코코블록을 선호하고, 월령이 높은 영아들이 다소 작은 레고블록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Rheingold와 Cook(1975)가 제시한 발달적으로 적합한 연령별 놀이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들은 24개월까지의 영아에게 적합한 놀이감을 제시하고 이중 12~18개월에게 적합한 놀이감으로 대근육 발달을 돕고, 작은 사물을 결합시키는 등의 크고 조작성이 간단한 놀이감을 제시하였고, 19~24개월 영아에게 적합한 놀이감으로 축소된 형태의 여러 가지 소근육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놀이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놀이감의 사용 개수는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사용하는 놀이감의 사용개수에서도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수의 블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니트 블록을 이용한 Johnson(197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Johnson (1974)은 연령에 따라서 블록놀이 행동이 점차 진보한다는 7가지 구성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구성발달단계에서 영아들은 월령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구성물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블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블록의 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령이 어린 영아들은 한 종류의 블록 또는 두 종류의 블록을 선택하여 놀이하는 반면, 월령이 높은 영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블록 종류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놀이가 나타나 놀이감 사용개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영아의 월령은 블록 놀이감의 수량과 구성물의 구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블록놀이에서의 지속시간을 살펴본 결과 영아가 블록놀이에서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은 평균 207.64초로 나타났다. 영아의 블록놀이 지속시간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즉 영아의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블록놀이를 하였다. 연령에 따라 구성놀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이재선(199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영아가 좀 더 많은 수의 블록 놀이감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놀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보다 발전적인 형태의 놀이로 진보하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놀이에서 영아들은 월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래의 구성물 옆에 블록을 나란히 놓아보거나, 또래의 구성을 모방하여 쌓기 활동을 하고, 놀이감을 주거나, 구성을 돕는 등의 행동으로 영아들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에 대한 집중시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면서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띄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볼 때 영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블록의 종류와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영아의 월령에 따라 놀이감 선택의 폭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해야 하며, 영아가 블록구성을 위해 사용할 블록을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놀이를 보다 더 확장하고 놀이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영아의 블록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어떠한가?

관찰을 통해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은 자유롭게 탐색하기, 같은 활동 반복하기, 욕구충족의 매체로 활용하기, 상징적으로 표상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블록놀이에서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탐색하려 하였고, 이러한 블록 탐색활동은 비의도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아들의 비의도적인 탐색활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그것을 신체를 이용하여 블록 탐색하기, 블록의 물리적인 변화 탐색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신체를 이용한 블록 탐색활동은 월령이 어린 영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는데, 영아들에게는 신체를 조절하며 블록과 함께 놀이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발달의 연속과정이었다. 영아들은 블록 놀이감을 빨고, 비비고, 누르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가졌다. 블록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면적인 상황은 영아에게 각 사물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영아들의 블록탐색활동의 특성은 유애열(2005)이 제시한 영아의 신체적 특성과 놀이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유애열은 1-2세의 영아들은 신체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연습하며, 물건을 잘 다루기보다는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가락 조작 기술이

발달하여 소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놀이한다고 하였다. 또한 Mcloyd(1983)가 제시한 영아의 물체사용능력 발달의 월령별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12-24개월 영아는 행동하기 전에 물체를 먼저 만져보고, 쳐다보고, 돌려보고, 손가락을 대보는 등의 조사하거나 탐색하는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발달 특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은 영아가 블록을 욕구충족의 매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영아들은 블록놀이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였다. 월령이 어린 영아들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걷기를 통한 이동능력이 발달하고, 이것은 영아들의 탐색활동을 급격하게 확장시킨다. 또한 19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이동능력(locomotion)이 안정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진다. 영아들의 이러한 능숙한 신체조절 능력의 발달은 영아의 움직임의 욕구와 비례하여 영아들은 교실 내에서 대근육을 사용하여 보다 큰 움직임을 하려고 하며, 신체의 힘을 조절하며 활동하는 영아들은 블록을 놀이할 전체를 이용하여 끌고, 블록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고, 블록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하며 신체적 기술 및 조작력을 발달시키고,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였다. 또한 쌓고-부수는 행동에 제약이 없는 블록 활동의 특성상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리고, 던지고, 부수는 행동으로 정서이완의 경험도 제공받았다. 영아들은 이처럼 블록영역이라는 안전지대(safe zone) 내에서의 욕구충족을 통해 정서를 해소 하였다. 이러한 영아들의 욕구충족의 매체로서의 블록놀이 경험은 Day(1983), Moffitt(1996)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블록이 의도대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감으로 긴장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되므로 영아가 자신감을 갖게 되며, 그 결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고 만드는 기쁨과 파괴의 쾌감도 즐길 수 있는 놀이감으로써 자신이 만든 블록 완성 물을 넘어뜨리면서 정서이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영아들의 블록놀이에서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경험하는 의도적인 탐색활동이었다. 영아들은 블록을 쌓는 활동에 매우 열중하였으며, 마치 쌓기 작업(work)처럼 일련의 활동을 반복하였다. 블록나열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영아에게는 반복놀이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였고, 영아들은 이러한 블록 구성놀이를 통해 사물을 조작하는 단계로부터 사물을 구성하는 단계로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아의 놀이 활동은 Piaget(1963)가 말하는 2차 순환반응 협응단계(coordination of secondary circular rea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지각하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놀이 형태를 보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Smilansky(1968)가 주장한 구성놀이가 기능적 활동으로부터 창조적 활동으로의 전환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고, 이러한 놀이특성을 보이는 영아는 반복 구성놀이를 통해 사회적 지식과 놀이 기술이 발달하여 상징놀이로의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아들은 블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구성한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여 놀이에의 활용하였다. 그 구성물의 형태는 사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영아는 자신의 구조물을 상징적으로 표상하여 상상놀이를 하는 놀이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Gowen(1995)이 제시한 상징놀이 발달단계 중 대체행동(Substitution)과 상상의 대상물이나 존재(Imaginary objects or Being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관찰에서 대부분 영아의 블록 놀이는 비참여 행동에서부터, 또래에게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 방관자적 놀이 형태,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래와 놀이감을 교환하거나, 같은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등의 단독놀이에서 병행놀이로의 전환 등을 나타내었다. 영아는 블록을 또래와의 만남의 매개로 활용하였다. 이는 Garvey(1989)의 주장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Garvey는 물체나 놀이감이

영아와 환경을 연결해 주고 영아가 자신의 느낌이나 흥미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성인이나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Bredekamp와 Rosegrant(1992)가 제시한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 중 비지시적 상호작용, 중재적 상호작용, 지시적 상호작용의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방법으로의 교사개입을 통해 제한적 형태이긴 하지만 영아의 놀이가 단독놀이, 병행놀이의 상태에서 연합놀이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며, 상징놀이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교사는 영아의 블록놀이가 미숙한 상태에서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영아가 비의도적인 활동에서 의도성이 있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의 전환을 도왔고, 이러한 놀이는 영아의 상징적 표상활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Gowen(1995)의 상징놀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유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어린 연령의 영아일지라도 놀이상황속의 환경적 요인이 영아의 놀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는 영아의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2. 제언

이상의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는 발달적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월령 폭을 좁게 , 다양하게 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 1세아, 즉 12~24개월 사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월령을 12~18개월, 19~24개월로 크게 구분하여 관찰함으로써 월령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감각운동기에 있는 영아 전체 즉,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블록놀이 특성을 다각적으로 탐구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관점을 중심으로 블록놀이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블록놀이에서의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영아-부모의 상호작용, 영아-또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영아가 블록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주변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나 부모가 영아의 블록놀이를 돕는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기 초의 3월부터 5월까지의 영아의 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영아가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기간의 놀이특성과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놀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놀이 양상을 탐구하고 보다 중단적으로 영아의 블록놀이를 관찰하여 놀이특성을 이해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소수의 관찰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만 1세 영아의 블록놀이 특성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 및 기타 영아보육시설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같은 월령에 있는 영아일지라도 각각의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진아(1998). 탁아기관의 질과 영아의 탐색/놀이 행동과의 관계: 물리적 놀이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승주(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아(1996). 3,4,5세 아동의 구성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의 질에 대한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현아·이종희(1996). 3,4,5세 아동의 구성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의 질에 대한 분석. 아동학회지, 제 19권, 155-167.
- 권경숙(2002). 어린이집 영아들의 갈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2세아를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2002). 쌓기놀이 경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입체지도 구성하기와 평면지 그리기 능력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혜진·이순형(2001).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제 22권, 201-211.
- 김경란(1994). 쌓기 놀이 영역에서 교사의 개입이 유아의 공간조망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란(1994). 쌓기 놀이 영역에서 교사의 개입이 유아의 공간조망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진(2003). 유아의 구성놀이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금주(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 연구-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2005). 주제가 제시된 영유아의 쌓기 놀이에 관한 질적 연구. 경성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아의 성,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희연(2002). 영아의 놀이행동 이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김정화·신유림(1999). 유아에게 적합한 125가지 놀이감. 서울: 창지사.
- 박경희(1989). 유아 적목놀이 유형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문(2000). 쌓기놀이 영역에서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정현(2002). 18~24개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어머니의 요구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혜(2005). 2세 영아의 구성놀이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주(2001). 소망유치원의 쌓기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지현(2000). 1세 영아-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인(1991). 적목놀이 영역에서의 교사 개입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순(1994). 블록의 유형과 수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애열(2005). 효과적인 영아보육과정. 크레듀.
- 윤서연(2003). 레고 놀이 선호도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미(1999).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이 유아의 블록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2003). 유아들의 쌓기놀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숙(2000).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 21세기를 향한 종일제 프로그램의 방향. 한국 어린이육영회 세미나 자료.
- 이매란(2003). 나무도막 놀이의 교육적 가치.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1). 영아의 단독놀이 행동과 가정환경자극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1998).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재선(1990). 유아 적목 구성놀이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김온기·이재선(1995).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향(2003). 만 2세 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기순(2000). 쌓기놀이 영역에서 교사 개입에 따른 유아 공간조망 능력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1999). 1, 2세 영아의 상징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희(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어머니 및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휘숙(2001). 아동발달: 아동의 심리적 세계. 서울: 박영사.

정미라(2005). 효과적인 영아보육과정. 크레듀.

정은희(2005). 쌓기놀이의 발달적·교육적 의미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경(2001). 3,4,5세 유아의 레고 구성놀이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정(2001). 놀이감과 성별에 따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성애(2001). 유아 놀이 지도. 서울: 정민사.

지성애·김영주·엄정례·조경서(1999). 영아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최미숙(1992). 유아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미숙(1992). 유아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정윤(2005). 효과적인 영아보육과정. 크레듀.

Bailey, N.(1969).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Psychological Cooperation.

Belsky, J., & Most, R. K.(1981). From exploration to play: A cross-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play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30-639.

Belsky, J., & Rovine, M.(1987).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redenkamp, S. & Copple, C. (eds.)(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Washington, D. C. : NAEYC.
- Cartwright S.(1974). Block and Learning. *Young Children*, 29(3), 141–146.,
- Cartwright S.(1990). Learning with large block. *Young Children*, 45 (3), 38–41.
- Day, B.(1983). Early childhood education: Creative Learning Activities. NY: Macmillan Publish Co., Inc.
- Dunn, J., Kendrick, C., & MacNamee, R.(1981). The reaction of first - born children th the birth of a sibling: Mothers' rep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1 - 18.
- Garvey, C.(1977). *Pla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wen, J. W., Johnson–Martin, N., Goldman, B. D., & Hussey, B. (1992). Object play and exploration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7, 21–38.
- Hirsh, E.S.(1974). Block Bluilding–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Classroom Teacher, *The Block Book*.
- Hirsh, E.S.(1996). Block Building: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Classroom Teacher.
- Hughes, F. P.(1991).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Allyn and Bacon, Inc.
- Hughes. M.(1978). Sequential analysis of exploration and play. *International Jomal of Behaviorial Development*, 1. 83–97.

- Hughes, M. & Hutt, C.(1979). Heartrate correlates of childhood activities: play, exploration, problem-solving, and day-dreaming. *Biological Psychology*, 8, 253-263.
- Hutt, C.(1979). Exploration and play. In B. Sutton Smith(Ed.), *Play and learning*. New York: Gardner Press.
- Huttenlocher, J., Vasilyeva, M., Cymerman, E., & Levine, S.(2002). Language input and child syntax. *Cognitive Psychology*, 45, 337 - 374.
- Johnson, H.M.(1974). *The Art of Block Building*. ed. Hirsh,E.S. The Block Book. Washington, D.C; NAEYC.
- Karyn Wellhousen 저, *A Constructive Approach to Block Play in Early Childhood* : 오은순, 이상화외 공역(2004). *블록놀이 - 구성주의적 접근* -,서울: 다음세대.
- Kostelink, M. J., Stein, L. C., Whiren, A. P., & Soderman, A. K. (1988).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Cincinnati, OH: South-Western.
- McCartney, K.(1984). Effects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Parten, M. B.(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7, 243-269.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Piaget, J.(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Y.: Norton.
- Piaget, J.(1963).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Norton.

- Piaget, J.(1970).*The envelopment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s*. New YORK: Viking Press.
- Piaget, J. (1996). Block Building: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Classroom Teacher.
- Rebeca Anne Bailey, Elsie Carter Burton(1982). The Dynamic infant, C.A Mosby Company.
- Rheingold, H. L.(1982). Little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adults, a nascent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3, 114 - 125.
- Rheingold, H. L., Hay, D. F., & West, M. J.(1976). Sharing in the second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7, 1148 - 1158.
- Rubin, K. H., Fein, G. C., & Vandenberg, B.(1983). Play.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693 -774). New York: Wiley.
- Tomasello, M.(1992). The social bases of language acquisition. *Social Development*, 1, 67 - 87.
- Vygotsky,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Wohlwill, J. F.(1984). Relationships between exploration and play. In T. D. Yawkey & A. D. Pellegriny(Eds.), *Child's play: Developmental and applied*(pp. 143 - 170). Hill Sdale, NJ: Erlbaum.

ABSTRACT

A Study on the block-play characteristics of infants 1 year-old

Lee, Da-Wo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and understand the "block-play" characteristics of infant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of infants 1 year - old or younger.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block-play" characteristics of infants 1 year-old or younger?

1-1. What 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lock-play of infants 1 year-old or younger?

1-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during the course of Block - play

of infants 1 year-old or younger?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6 infants aged 1 year or younger at the "K" day-care center located in the Kyong-gi provinc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gather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carried out 3 to 4 times a week from March to May of 2006. In addition, interview with the instructors, video recordings, photographs, and various documents wer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lassifying, organizing, and categorizing the data collected in observation logs, interview contents, video, and related documents from the day-care center.

The key result of this research along with the question can be described as follows:

The observation results of the "block-play" characteristics of infants can be examined in two parts. One be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een in "block-play" and the other is characteristics that emerge during the course of "block-play". The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en in "block-play" are the types of blocks used and the number of blocks used by the infants in "block-play" as well as the uninterrupted "block-play" time. Also, differences can be seen in the development level based on age of the infant.

Infants mainly used "paper brick blocks", "sponge blocks", and others that were big in size and with few movements are easy to construct. If block types were compared by age group, younger infants, in terms of

months-old, used big "coco blocks" among the construction blocks and the older infants used relatively smaller "lego blocks".

In the case of the number of blocks used by the infants during play, it was observed that infants aged 19~24 months used more number of blocks than infants aged 12~18 months.

In the case of uninterrupted "block-play" time of infants, infants aged 19 ~24 months partook in the "block-play" for a longer uninterrupted time than infants aged 12~18 months.

Characteristics that arose during the course of "block-play" are categorized into "freely inquiring", "using it as a medium to fulfill a want", "repetition of same activities", and "using it symbolically".

If we examine among the sub-category of "freely inquiring" among the infants' "block-play" activities, it can be classified into unintentional behaviors of "inquiries using the body" and "investigating the physical changes of the blocks". For the most part, infants sucked, rubbed, squeezed and grabbed the blocks with their body.

Furthermore, the infants gained interest in the various physical changes of the blocks while participating in block play. The various situa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infants' block play activities allowed the infants to not only gain knowledge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terial, the infant was able to learn and experience causal relationships.

If we examine the "using it as a medium to fulfill a want" characteristic of infants' "block-play" activity, they fulfilled their physical urges dragging, pushing, and pulling the blocks all-around the classroom by using their bigger muscles to control the movement. In

addition, to fulfill their desires to climb to higher grounds they frequently climbed on onto the blocks. They also fulfilled their emotional desires using the blocks. By throwing, stacking and destroying, kicking activities, they relieved their emotions.

On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during the observation of "block-play" activity was "repetition of same activities". The infants stacked the blocks, destroyed the blocks, and then stacked them again or they would lay out the blocks horizontally and connect the blocks continuously. During repetitive block play, the infants became familiar with the blocks and began to construct the blocks and progressed from the initial stage of making objects to constructing objects. From these activities, the infant acquired social knowledge and play skills which advanced to more symbolic play.

Of the infants' "block-play" characteristics, "using it symbolically" was the most advanced form of "block-play" observed only in one year-old infants. Through stacking activities, infants constructed structures. Even though these structures were symbolic and in un-structured form, they would give it a name. Through "block-play" they converted to "make-believe play". At this "using it symbolically" stage, the infants used "block-play" as a medium to meet with infants of similar age. In the beginning of block play infants did not interfere and looked on passively but gradually took part in passively playing with other infants and later became more involved as they exchanged blocks with each other or played together with the blocks, as they transitioned from individual play to playing side-by-side. Also, with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of instructor's mutual verbal application and the supply from

the physical environment, although limited, advancement to a form of united play could be observed, and with the help of the instructor, the play converted from an unintentional activity to a goal-oriented intended activity. This kind of play provided the basis for symbolic emblematic activity for infants.